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2월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모 상 미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

The Impact of adolescent's complex traumatic experi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

- testing the mediation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 -

2014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모 상 미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

지도교수 정 승 아

이 논문을 석사 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모 상 미

모상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조교수 김택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권해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정승아 (인)

2013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
I . 서 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이론적 배경	7
1. 복합외상경험	7
a. 복합외상의 개념	7
b. 청소년기의 외상경험	10
2. 부정적 자동적 사고	12
a.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개념	12
b. 복합외상과 부정적 자동적사고	15
3. 대인관계문제	15
a. 대인관계문제	15
b. 복합외상과 대인관계문제	17
c. 자동적 사고와 대인관계문제	18
C. 연구 문제 및 가설	19
II . 연구 방법	20
A. 연구대상	20
B. 측정도구	20
1. 외상경험척도(TAQ)	20

2. 학교폭력 척도	21
3. 아동 청소년용 자동적 사고 척도(K-CATS)	21
4.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KIIP-SC)	22
C. 연구 절차	22
D. 자료 분석	23
III. 연구 결과	24
A. 응답자의 특성	24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24
B.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26
1.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6
C.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 부정적자동적사고,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	36
D. 집단에 따른 차이 검증	38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검증	38
E.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	39
1. 확인적 요인 분석	39
2. 구조모형 검증	42
IV. 논의 및 제언	48
참 고 문 헌	53
부록	65

표 목 차

<표 1> 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24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25
<표 3> 신뢰성 분석결과	26
<표 4> 복합외상 경험 척도에 대한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7
<표 5> 복합외상 경험 척도에 대한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8
<표 6> 자동적 사고 척도에 대한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9
<표 7> 자동적 사고 척도에 대한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0
<표 8> 대인관계문제 척도에 대한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2
<표 9> 대인관계문제 척도에 대한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3
<표 10> 최종 신뢰성 분석결과	34
<표 11> 집중타당성 평가	35
<표 12> 판별타당성 평가	35
<표 13>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 부정적자동적사고, 대인관계 문제 간 상관관계	37
<표 14>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검증	39
<표 15>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40
<표 16>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43
<표 17>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43
<표 18>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44
<표 19>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45
<표 20> 성별 경로 분석	47

그림 목 차

<그림 1>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41
<그림 2> 연구모형	42
<그림 3>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45
<그림 4> 경쟁모형 분석결과	46

ABSTRACT

The Impact of adolescent's complex traumatic experi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

- testing the mediation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 -

Mo Sang Mi

Advisor : Prof. Jung Seung Ah.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mediated effects of automatic negative thoughts in the aspect of the problem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plex trauma among adolescents. A total of 640 adolescents who has attended in three middle and high schools in Gwangju took part in the study. As measuring instruments, 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school violence scale, Korea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K-CATS), and 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SC) were used.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was that automatic negative thoughts and problem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ll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in the experience of complex trauma. On the basis of the result,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SEM) analysis of the parameter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re as followed: First, goodness of fit of mediated model was good, and the effects of parameter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was more concise than the fully competitive model,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by setting fully competitive model as the parameter model. Thus, the experience of complex trauma not only affected the interpersonal issue directly, but also influenced indirectly on the basis of the mediation of automatic negative

thoughts.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1.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살면서 다양한 사건에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사건을 경험한 이후 다시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때로는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를 넘어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사건에 노출되어 강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을 외상적 사건(traumatic event)라고 하며, 이러한 외상적 사건 이후에 개인에게 남겨진 정신적인 충격을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이라고 한다. 외상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내려지는 진단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이다(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2013). DSM-IV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불안 장애 중 하나로, 외상 사건에 대한 재경험(re-experience), 회피(avoidance), 과각성(hypersensual)의 세 가지 증상 범주를 포함하였으나 DSM-5에서는 스트레스(Stress), 침입증상(intrusion symptoms), 회피(avoidance), 인지 및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negative alterations in cognitions and mood) 4가지 증상 범주를 포함한다. 이는 외상 특유의 신경 생리학적 반응과, 치료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유용한 진단이다(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2013). DSM-IV에서 PTSD의 증상 범주를 보고 연구자들은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상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다(Davidson & Foa, 1991; Kilpatrick & Resnick, 1992; 안현의, 2007 재인용).

많은 연구에서 외상 경험이 개인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는데, 특히, 아동 청소년기에 성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았으며, 더 많은 신체화 증상과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였다(Bryer, Nelson, Miller, & Krol, 1987; Zlotnick, Zakriski, & Shea, 1996).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 역시 과도한 공격성과 친밀한 관계 맺음의 어려움, 수면 장애, 약물 중독, 자살 충동 등과 같은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의 위험 요인이 된다(Briere & Runtz, 1990; Lewis & Shanok, 1981). 또한 가정 폭력 피해 여성(Walker, 1984), 성학대 피해 여성(Burgess & Holmstrom, 1974) 등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성인기의 심각

한 외상이 자기혐오, 절망감, 자신 및 상황에 대한 인지왜곡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수반함을 보고하였다.

아동 청소년의 외상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PTSD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성별과 연령, 그리고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매우 흔한 심리적 장애 가운데 하나이다. 자연재해, 인재, 범죄 행위, 가정 내 폭력, 학교 폭력, 교통사고, 질병, 전쟁, 자살, 성범죄, 학대행위 등 소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의되는 외상경험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널리 흔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된 이들의 상당수가 심리적 외상 증상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고, 아동 청소년기의 외상 경험은 특히 성인기에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Finkelhor & Dziuba-Leatherman, 1994; 안현의, 2005 재인용). 아동 청소년의 외상 경험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배경은 외상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 표현이 발달적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청소년의 경우 아동기나 성인에 비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더 많이 표현되는데, 그 예로서 성적 도발 행위, 스릴 추구 행동, 약물 남용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 반복적인 가출 등을 들 수 있다(Everstine & Everstine, 1993). 이와 같은 청소년의 외상적 증상들은 DSM-IV의 PTSD 진단 기준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안현의, 2005).

그래서 최근의 외상 연구에서는 이후의 심리적 결과에 따라 외상적 사건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Pelcovitz, Kaplan, DeRosa, Mandal, & Salzinger, 2000; van der Kolk, Pelcovitz, Herman & Roth, 1996). 자동차 사고나 자연 재해, 강도와 같이 일회적인 사고인 Type I 외상(Terr, 1991) 이라고 하며 불안장애인 단순 PTSD의 유발 원인이 된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대인간 폭력 성격을 띤 Type II 외상의 경우 단순 PTSD의 불안 증상과는 또 다른 심리적 증상을 유발하며, 이와 같은 유형을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이라고 칭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이처럼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행해지는 대인 폭력의 성격을 보이는 외상경험은 type II 외상,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극단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Disorders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 이하 DESNOS), 발달적 외상 장애(Developmental trauma disorder),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 복합외상(Complex Trauma)등으로 명명되어 왔다.

복합외상경험은 정서문제, 행동문제, 신체화 증상, 대인관계문제, 자기-귀인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 시킨다(Zucker, Spinazzola, Blaustein,& van der Kolk, 2006).

정서적 학대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대인관계에서 문제발생가능성을 높이며(Straus, 1990), 우울이나 불안, 대인관계 예민성과 같은 만성적인 증상들과도 관계가 높다(Briere & Runtz, 1988). 기존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보이는 후유증을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많으며(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대인공포증, 정신분열병, 우울장애 등을 동반한다고 보고하였다(송동호, 육기환, 이호분, 노경선, 1997).

복합외상의 후유증은 대인관계에서의 불신감, 수치심, 자존감상실, 자기 파괴적 행동, 정서조절의 어려움, 대인관계능력손상과 성격 변화 등으로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의 단순 외상에 비해 매우 심각하며 증상도 다양하다(Briere & Runtz, 1988; Davis, Petretic-Jackson, & Ting, 2001; 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복합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는 단순 PTSD의 불안 증상의 영역을 넘어, 보다 깊은 자기(Self)의 영역에 변화를 일으켜 심리적인 고통을 발생시킨다. 청소년들의 경우 복합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첫째, 복합 외상으로 인한 성격적인 변화가 아직 발달 도상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쳐 성인기까지 이어지고 만성화될 수 있다. van der Kolk 등(1995)은 복합 외상을 처음 경험한 연령이 복합 PTSD의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으며 많은 연구에서 발달 단계의 외상 경험은 성인기의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아동 및 청소년 학대에 관한 연구결과들과 매우 유사하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성인 못지않게 다양한 외상 사건들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2006)의 연구 결과,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15.1%가 PTSD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 PTSD의 증상만을 포함한 것이며, 위기 청소년은 중복된 외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김형수, 2009) 복합 PTSD의 증상을 고려한다면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Burbridge(1994)는 복합외상을 경험한 연령이 어릴수록 이후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심각해진다고 하였다. 국내 외 많은 연구에서 아동·청소년기의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 우울, 성격변화, 정서조절의 어려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밝혔다(김정규, 김중술, 2000; 오혜정, 2004; 고나래, 2008; 최은영, 2010; 장진이, 2010; Maker, Kemmelmeier & Peterson, 1998; Zucker, Spinazzola, Blaustein & van der Kolk, 2006; Wonderlich et al., 2007).

지금까지의 복합외상의 몇몇 연구들은 복합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과 개념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복합 외상에 대한 연구는 단순 PTSD와는 다른 고유한 특징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두었고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복합외상에 대한 치료적 접근에 대한 연구와 함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대인간 외상경험, 복합외상경험을 주로 아동·청소년기의 주양육자나 가족에서의 학대경험으로 한정해서 살펴보았다(이유경, 2006; 고나래, 2008; 이태영, 2011; 김진희, 2012; 박나영, 2010). 그러나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은 하루일과의 2/3이상을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핵심 생활영역이다(한수경, 2013 재인용). 한수경(2013)은 Courtious & Ford(2009)가 발달적 관점을 강조하여 복합외상을 자기 정의와 자기조절이 공고화되는 발달상 취약하고 결정적 시기에 경험한 부정적 대인간 외상(developmentally adverse interpersonal traumas)으로 정의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외상경험을 발달적 관점을 강조한 개념인 대인간 외상이라고 명명하고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포함시켜 연구하였다. 정지선(2007)은 복합외상이란 장기간에 걸쳐 다중적으로 경험한 대인간 외상을 의미하며, 대인간 외상은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또는 폭행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복합외상에 적용되는지 학교폭력 피해 집단의 특징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복합 외상 증상을 확인한 결과, 복합 PTSD의 하위증상인 정서적 각성조절 기능의 변화, 주의력과 의식의 변화, 자기 인식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 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체계의 변화 모두에서 높은 증상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학교폭력을 대인간 외상으로 볼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한수경, 2013; 최윤자, 김아영, 2003; 정지선, 2008),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인간 외상인 학교폭력 또한 복합 외상의 범주에 넣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유경(2006)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경험이 안정애착에 의해 매개되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고나래(2008)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조절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태영(201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수경(2013)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진희(2012)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합외상경험이 정서 지능이 매개되어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복합외상경험과 그로 인한 대표적인 심리적 부적응인 대인관계문제 사이의 매개변인을 연구함으로써 복합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기제를 밝히려 했던 몇몇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가정하였다. 사람들은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외상경험을 한 사람들의 사고와 신념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고 있으며(Ehlers, & Clark, 2000; Foa & Riggs, 1993; Foa & Rothbaum, 1998), 그러한 사고와 신념의 변화가 외상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언급하고 있다(Foa, Clark, Tolin & Orsillo, 1999).

Bolton과 Hill(1996)은 외상경험이 대부분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외상경험으로 인해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불쾌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을 통제감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력한 존재라고 느끼게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스스로가 유능한 존재이고, 세상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며 내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서의 붕괴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역기능적 신념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 혹은 세상 일반에 대하여 절대주의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황의 다양성이나 가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신념이다. 여기서 신념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극단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해서, 원래의 형성 배경과는 달리 그러한 신념이 실제로는 상위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보다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신념이 위반될 경우 극단적이고 과도한 정서 경험이 초래된다는 의미에서 역기능적이라고 한다. 그 반면에 자동적 사고는 특정한 상황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위협 정도나 그러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처 능력 혹은 대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구체적인 생각이나 영상으로 간주된다(권정혜, 1993; Beck, 1985; Fennell, 1989).

한편 위협적이거나 기억하기 싫은 대인관계 상황에 당면했을 때, 역기능적 신념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그 상황의 위협정도를 과대평가하고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처능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Clark & Wells, 1995; 이영화, 2011 재인용). 특히 당면하는 대인관계 상황이 평소 본인이 취약하게 느끼는 상황, 이를 테면 과거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크게 당했던 상황과 유사할 경우에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개인이 당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는 그 사람이 평소 가지고 있는 인지 도식이나 일반적인 신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본인이 경험하는 상황 자체의 위협정

도나 유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불안의 유해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지속기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불안의 발생에 행동억제의 기질적인 요인과 함께 가족환경, 부모의 양육방식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Morris & Masia, 1998).

이 중에서 사회적 상황에서의 복합적 외상경험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 사회불안 장애를 생성하는 일차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불안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변인이다(Hackmann, Clark & McManus, 2000; 김지은, 2013 재인용). 그렇지만, 사회적 외상경험만으로 불안장애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며, 다른 요인들 중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불안장애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Wilson 과 Rapee(200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공포증환자에게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부정적 해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이 개인의 원치 않는 성격을 표출시킨다는 믿음이 강하면 사회공포증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사회공포 증상은 부정적 사회적 사건만으로 지속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해석 즉, 인지요인이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지이론의 일부 학자는 사회불안이 본질적으로 ‘인지’의 장애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Clark & Wells, 1995). 사회불안의 인지모델에서는 사회불안장애의 유지와 발달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역기능적 신념은 어려서부터 경험을 통해 습득된 절대주의적이고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잘못된 신념 체계를 말하며, 자동적 사고는 불안을 경험하기 직전, 경험하는 동안 또는 경험한 직후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가는 생각이나 심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불안의 인지요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사회불안과 부정적 사고 간에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사회불안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자기 평가가 높고(Stopa & Clark, 1993),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며, 타인의 평가를 매우 중요시 하는 점, 타인의 거절을 재앙적으로 해석하고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하는 등의 부정적인 인지가 높았다.

최근 아동 청소년 사회불안장애의 인지요인 연구에서, 사회불안이 높거나 사회불안 진단을 받은 아동 청소년의 경우도 부정적 인지를 많이 보이며 사회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등, 성인 사회불안 집단과 유사한 부정적 인지과정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A Ifano, Beidel & Turner, 2002; 박한아, 2006 재인용). 청소년들이 겪는 대인관계 문제는 친구문제를 비롯한 대인관계의 갈등과 심리적 부적응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 또

래관계의 확장으로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다양한 변화들을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이다. 그러나 아동기에 주 양육자로부터 행해지는 아동기 학대 경험, 왕따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경험 등을 대인관계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고나래, 2008; 김진희, 2012; 이유허, 2005; 이태영, 2011; 조은정, 2004; 차미영, 2010). 그래서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연결되어 부정적 인지, 혼란된 정서, 자기개념의 손상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청소년의 정신 병리와 인지요인의 관련성 연구가 증가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지발달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인지 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학교와 또래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 증가는 이 시기의 초기 청소년이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 사회불안을 보이는 아동 청소년은 위협자극에 주의편향을 보였고(Lonigan, Vasey, Phillips, & Hazen, 2004), 미래의 긍정적 대인관계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을 과소추정하고 부정적 대인관계상황의 가능성을 과대 추정하는 등의 인지적 편파를 보였다(Spence, Donovan, & Brechnam-Toussaint, 1999; 오경자, 양윤란, 2003b 재인용).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에 근거하여 ‘인지적요인(자동적사고)’이 하나의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복합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겪는 대인관계문제에서 인지적 요인을 고려하여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려 한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변인으로 검증하는 것은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설명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자동적 사고를 살펴봄으로써 상담 또는 면담장면에서 복합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며, 치료적 개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복합외상경험이 발생시키는 자동적사고, 대인관계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B. 이론적 배경

1. 복합외상경험

a. 복합외상의 개념

외상적 사건(Traumatic Event)이란 신체적 및 정신적인 충격을 줄 만큼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하는 것을 뜻하며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이란 이러한 사건 이후에 개인에게 남겨진 심리적인 충격 및 상처를 의미한다. 심리적 외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발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는 외상 사건이 반드시 선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고통이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 2013)에서는 외상적 사건을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타인의 죽음, 상해,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의 목격; 가족이나 친지의 예기치 못한 무자비한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및 이들이 경험한 죽음이나 상해에의 위협으로 정의한다.

외상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인 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진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이다.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수록된 PTSD의 주요 세 가지 증상은 외상 사건에 대한 재경험(re-experiencing), 지속적인 회피(avoidance)와 과각성(hyperarousal)으로 DSM-5 축 1 증상인 불안 장애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연구자들은 성폭행 외상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Burgess & Holmstrom, 1974), 성 학대 후 증후군(Briere, 1984), 학대 여성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Walker, 1984), 등의 연구에서 피해자의 자기 가치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응집된 자기감의 상실 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학대 아동이나 가정 폭력 피해자, 난민 경험자와 같이 반복적이고 대인적 폭력적인 외상 사건에 노출된 사람들을 연구하던 연구자들은 단순 PTSD의 증상만으로는 이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을 포괄할 수 없으며 치료효과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이란 장기간에 걸쳐(traumatic exposure of extended duration) 다중적(multiple traumatic events)으로 경험한 대인적 외상(interpersonal victimization)을 의미한다(Luxenberg, Spinazzola, & van der Kolk, 2001). 여기서 대인간 외상(interpersonal trauma)는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또는 폭행을 포함한다(Hegadoren, Lasiuk, & Coupland, 2006). 복합 PTSD는 복합 외상으로 인한 성격과 자기조절 기능의 변화에 대한 진단으로(van der Kolk, 2005), 정서적, 행동적, 대인관계 기능을 관장하는 심층적인 심리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Herman(1992)은 아동기 학대, 가정 폭력, 장기화된 전투 상황과 같은 복합 외상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유

한 심리적 증상과 성격적인 변화가 있으며 이를 단순 PTSD와 구분하여 복합 PTSD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현의, 2007 재인용). 안현의(2007)는 외상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 결과가 달라진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찾지 못했으나, 한 유형은 오랜 시간 임상가와 연구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왔는데, 반복적으로 행해지면서, 대인적 폭력의 성격을 띤 외상사건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의 외상은 제 2의 외상(Type II trauma), 발달적 외상(developmental trauma) 또는 애착 외상(attachment trauma)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안현의,2007), 본 연구에서는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이라고 칭하겠다.

복합 PTSD의 정서적 각성 조절 기능의 변화는 단순 PTSD 증상 중에서 정서의 범위 제한 증상, 분노 폭발 증상과 관련되고, 복합 PTSD의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는 단순 PTSD 증상 중에서 사건에 대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떠오르는 고통스런 회상 증상, 외상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할 수 없는 증상과 관련되며, 복합 PTSD의 타인과의 관계 변화는 단순 PTSD 증상 중에서 외상이 회상되는 행동이나 장소를 피하는 증상과 관련되고, 복합 PTSD의 의미 체계의 변화는 단순 PTSD의 미래가 단축된 느낌과 관련된다(Ford, 1999). 하지만 단순 PTSD는 복합 PTSD의 자기파괴, 충동성, 위험감수 행동, 자살 행동과 같은 정서 조절과 죄책감, 수치심, 무능감, 절망감과 같은 자기에 대한 근본적 손상 병리적 해리, 신체화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Ford, 1999). 그렇기 때문에 단순 PTSD와 복합 PTSD의 강한 상관에도 불구하고 두 진단은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정지선, 안현의, 2008).

Courtois(2004)는 복합 외상에 노출된 개인은 우울, 불안, 절망감, 자기혐오, 해리 증상, 약물 남용, 자기 파괴적 행동, 대인관계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의 심리적 고통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만성적인 대인적 폭력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은 단순 외상으로 인한 것보다 더 만성적이고 심각한 증상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Kessler, Bromet, Hughes, & Nelson, 1995) PTSD의 불안 증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과 관련이 있다. 장기간 대인 폭력적 외상에 노출된 사람들은 정서나 충동을 조절하기 어렵고(Herman, 1992), 자기 조절(self-regulation)의 결함이 있다(Roth, Newman, Pelcovitz, van der Kolk, & Mandel, 1997). 또한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약물에 의존하거나 극단적인 해리 상태를 보일 수 있다. 이렇듯 장기적으로 반복적이며, 대인 간에 발생하는 외상 사건에 따른 심리적인 고통은 단순 외상에 비해 후유증이 훨씬 더 심각하며 증상도 다양하다(Courtois, 2004; Ford, 1999; Herman, 1992). 즉, 복합 외상으로 인한 심리

적 어려움은 불연속적이고 일회적인 외상으로 인한 단순 PTSD의 표면적인 불안 증상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정서적, 행동적, 대인 관계적 기능을 관장하는 심층적인 성격 구조의 변화로 나타난다.

Herman과 Pelcovitz, van der Kolk, Spitzer, Kaplan(1997)은 복합 외상 피해자들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 공통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목록을 만들고 이를 외상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아 복합 PTSD에 관한 27가지 증상 목록을 만들었다. 진단 목록은 DSM-IV(APA, 1994)에서 PTSD의 부가적 특징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극단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Disorder of Extreme Stress Nor Otherwise Specified; DESNOS)”로 추가되었다. 비록 DSM-5에는 독립적인 진단체계로 자리 잡지 못하였지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외상 경험 이후 나타내는 성격적 변화를 인정하면서 ICD-10 분류체계에 “재앙적인 스트레스 이후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성격 변화(Euduring personality changes after catastrophic experience)”라는 진단 범주로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대인관계,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손실’이라는 내용과 ‘외부 세상을 향한 적의감과 불신, 대인관계 철회, 공허함과 무망감, 항상 긴장된 상태이거나 위협을 느끼고, 단절된 느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안현의, 2007).

b. 청소년기의 외상경험

청소년기의 외상은 아동과 사춘기 시절에 엄청난 공포, 불안 및 고통을 무기력과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천재지변, 화재, 자동차 사고, 신체적 및 성적 폭행과 폭력의 목격 등이 있고, 중요한 상실의 경험도 외상과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Newcorn & Strain, 1991). 이러한 사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나 모든 외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의 범위와 심각도는 광범위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Giaconia et al., 1995; Fletcher, 1996).

외상에 대한 DSM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다양한 사건에서 가족 구성원의 죽음이나 이혼, 심각한 질환, 이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이런 사건에 대한 증상을 적응장애라고 하였다. 적응장애에 대한 연구를 보면 명칭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로 가정 붕괴 후 아동의 증상을 보면 가족의 역동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외상 후 증상을 연상시킨다(Heatherington, Stanley-Hagan, & Anderson, 1998).

청소년들이 보고하는 외상적 경험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성적 학대나 체벌을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비행 남학생들의 경우 폭력 목격을 더 자주 보고했고, 비행여학생들의 경우 폭력경험을 더 자주 보고했다. 대인적 폭력을 수반하는 외상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은 다른 유형의 외상보다 심리사회적 및 신체적 기능성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비록 모든 비행 청소년이 외상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 및 역학 연구들은 청소년 사법 체계 하에 있는 청소년들 중 적어도 4명 중 3명은 잠재적으로 외상의 희생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Julian, 2012). 그리고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비교적 사소한 사건, 즉 학교에서 경험하는 좌절감이나 반복되는 언어폭력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사실상의 외상 후 반응은 다양한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준거에 따라 외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기보다는 현재 청소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이홍림, 2004).

정지선, 안현의(2008)는 학교폭력이 복합 외상의 특성이 보이는지 확인하였는데 학교폭력으로 단순 PTSD로 진단받은 청소년 중 27.2%는 단순한 불안 증세가 아니라 복합 외상으로 인한 자기조절기능과 성격문제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복합외상으로 명명할 수 있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어 있으며(이은희, 강은희, 2003), 우울하고 불안한 증상(보건복지부, 2001)을 보인다. 부당한 요구에도 거절이나 반항하지 못하고 말버릇이나 행동이 부적절하며(보건복지부, 2001), 반항적 행동이나 극단적으로 수동적이고 부주의한 행동 특성(김영신 등, 2001)을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후유증을 보이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단순 PTSD와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하는 불안장애를 가장 많이 진단받는다(보건복지부, 2001). 그러나 단순 PTSD는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등의 일회적인 외상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으며(한수경, 2013 재인용), 정지선, 안현의(2008)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도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60%로 나타나고, 나머지 40% 중 단순 PTSD 진단을 받는 집단보다 복합 PTSD 진단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나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증상을 단순 PTSD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외상은 강한 무기력과 두려움의 경험을 동반하며 때로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아동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외상이라면 이때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청소년에게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의식에 통합되지 못함으로써 외상 기억을 생생하게 원상태로 남겨 항상 위기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다(Greenwald, 1998).

또한, 인간의 의식 내에서 정보가 처리되지 않은 외상은 과다반응을 일으키고 환경적인 위협을 경험하게 한다.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떠오르는 외상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위기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이런 청소년은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지각하며 외상에 대한 기억으로 자신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위험한 것으로 생각한다(Chemtob, Roitblat, Hamada, Carlson, & Twentyman, 1988).

청소년기는 아직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외상경험은 신경 전달 물질계나 두뇌의 변화, 인지 도식의 변화, 내적 표상 등 전반적인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이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주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보이게 된다. Terr(1991)는 아동 청소년의 외상에서 4가지 특징적인 유형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외상사건들을 반복적으로 영상화하고 행동과 육체적인 반응, 특정한 외상에 대한 두려움을 되풀이하고, 삶과 미래에 대한 변화된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특성들은 외상 경험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며 성숙과 성인기로의 발달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복합 외상은 오랫동안 지속된 반복경험이나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외상 경험을 부정하거나 무감각해지고, 해리적인 상태를 보이거나 오히려 강한 분노와 공격적인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로서, 복합 외상 증후군, 또는 성격장애나 기타 만성적인 정신질환과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2. 부정적 자동적 사고

a.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개념

개인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자극들과 심리적 문제의 사이에는 자동적 사고라는 인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여기서 자동적 사고는 어떠한 사건을 접하게 되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사고를 말하며, 이는 긍정적인 내용일 수도 부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내용이라면 심리적 문제는 경험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내용이면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김정문, 2010).

또한 자동적 사고는 부정적인 정서의 표면인식으로 구성된 고정적이지 않으며 잠정적인 인지로 어떠한 사실을 경험하기 전, 경험하는 동안 또는 경험한 직후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가는 생각이나 심상을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자신에게 내뿜는 자기진술이나 자기말, 독백이며, 내면적 언어, 내면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박한아, 2006). Beck에 의해 발전된 인지치료는 우울, 불안 등의 정서 장애에 대한 치료적 접근법으로 우울증 환자의 사고와 꿈을 조사한 결과 우울증 환자들이 인지처리 과정에서 일관된 부정적인 편견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자기 자신과 미래, 주변 환경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왜곡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과 심상을 사소한 자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성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부정적인 사고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떠오르거나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컬어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 한다(우민정, 2006), 간혹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신념을 같은 문제로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로 인하여 구분하게 된다.

첫째, 인지적 처리과정의 수준이나 깊이에 있어서 역기능적 신념은 심층적인 수준의 사고내용인 반면,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상대적으로 표면적인 사고내용을 말하며, 둘째, 안정성에 있어서 역기능적 신념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반면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일시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불안정한 인지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내용면에서 역기능적 신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기능적 신념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절대주의적인 신념인 반면,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자기 자신, 자신의 미래,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평가적 내용을 포함한다(권석만, 윤호균, 1994).

이와 같이 개인은 과거의 스트레스 경험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역기능적 인지처리과정을 거치거나,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정서의 경험으로 인해 기분장애에 속하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초래하거나 분노조절과 같은 다양한 정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불안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상관관계 연구(Dodge, Hope, Heimberg & Becker, 1988)로, 사회불안집단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떠오르는 사고를 모두 보고하게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사고열거법을 통해서 사회불안과 부정적 사고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가 사회불안과 부정적 사고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른 선행연구(Glass & Furlong, 1990)에서는 사회불안의 이인적 평가도구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말 검사’에서 나타나는 자동적 사고가 사회불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에서, 사회불안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부정적인 자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정신 병리의 장애에 따라서 인지적 내용이 특정적이라는 ‘내용-특수성 가설’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사회불안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Stopa와 Clark(1993)은 사회불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불안과 관련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부정적인 자기평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사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적 사고, 대체전략 및 행동계획에 대한 사고, 그리고 회피 또는 도피에 대한 사고 등 5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사회공포증 집단의 자동적 사고의 빈도를 다른 불안장애 집단 및 비환자 통제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회공포증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자기평가의 빈도가 일관되게 높은 반면,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사고나 회피에 대한 사고는 일관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자동적 사고는 사회공포증집단과 다른 집단이 구별되었으나,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사고나 회피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안과 우울의 유발에 관여하는 생활사건과 인지내용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불안은 위협과 관련된 부정적 사고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는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권석만, 1996). 청소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의 증상과 자동적 인지를 검증했는데, 위협에 대한 인지가 불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Ambrose, Rholes, 1993).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자동적 사고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이희연, 하은혜,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에 비해, 중, 고등학생들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보였다(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이희연, 하은혜(2008)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적 사건의 보고가 더 많고 그에 따라 여자 청소년이 인지적으로 더욱 취약하다는 것은 청소년기의 동안의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여 부정적자동적 사고의 총점과 하위요인인 적대적 인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Schniering & Rapee,(2001)의 호주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료의 부정적자동적사고의 사회불안인지, 우울인지, 적대적 인지에 해당되는 사회적 위협 요인, 개인적 실패 요인, 적대적 의도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주효과를 나타냈으며, 사회적 위협 요인과 개인적 실패요인은 여학생 집단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적대적 의도 요인은 남학생 집단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재인용). 이영화(2011)의 연구에서도 부정적자동적사고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양재원 등의 연구(2005)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 여학생들

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성향이 높고, 우울증의 유병률도 여성의 경우에 더 높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b. 복합외상과 부정적 자동적사고

외상경험으로 인해 사회불안 및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또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빈도가 적으며, 눈을 마주치거나 똑바로 응시하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한다든지, 목소리를 떨거나 말을 더듬기도 한다. 혹은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과잉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회피하는 행동을 유발하고, 이런 회피행동은 다음에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미리 그 상황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되고 예기불안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예기불안은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평가에 대한 비현실적 위협지각이라는 인지요소들을 강화시키게 한다(이정운, 1996).

오경자와 양윤란(2003a)의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에 대한 사회적 외상경험의 영향력이 유의미했으며, 사회적 외상경험이 초등학교 시기보다 청소년기 이후의 사회불안을 더 잘 설명하였다. 또한 외상경험의 누적효과 있어 아동보다 청소년이 사회적 상황에서 외상경험으로 인해 더 큰 심리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이 청소년의 사회불안,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 모두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외상경험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대인상황 외상경험이 수행상황 외상경험 보다 설명력이 더 크다고 하였다(강민지, 2005).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외상경험이 있을 경우 부정적인 사고가 대인불안을 더 심화시켰다고 보고 하였다(송은영, 2005).

3. 대인관계문제

a. 대인관계문제

박순진(2004)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적

인 대인관계 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초기 대인관계의 양상에 따라 원초적 신념이 형성되는 바, 한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해 나가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대인관계문제는 상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주제 중의 하나이며, 대인관계가 아닌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인관계문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 애정,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이 아닌, 미움, 증오, 배척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서문제도 대인관계 문제가 깊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Horowitz, 1979). Leary와 Sullivan의 대인관계 모형 이론에서 수직적인 관계에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성립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증오와 사랑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이태영, 2011 재인용).

대학생,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밝힘으로써 적절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권석만(2008)은 자신의 상담경험에 근거하여 부적응적 대인관계를 회피형, 피상형, 미숙형, 탐닉형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좀더 세분하면, 회피형은 경시형과 불안형으로, 피상형은 실리형과 유희형으로, 미숙형은 소회형과 반목형, 탐닉형은 의존형과 지배형으로 나누어지게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문제 척도 하위유형과 비슷한 점이 있다.

Horowitz(1988)의 대인관계 문제 척도를 토대로 구성한 정남운(2001)은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에서 대인관계문제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로 구성된다. 통제지배는 힘에 대한 욕구가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행사하려는 것이고, 자기중심성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미분화 상태로 자기중심성적으로 타인과 세상을 지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냉담과 사회적 억제는 비사회적인 특성으로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기 어렵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회피적이며 고독감을 느끼기 쉽다. 비주장성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자기의 주장이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과순응성과 자기희생은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욕구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그리고 과관여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지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경향으로 우호적 지배통제와 관련된다.

b. 복합외상과 대인관계문제

아동기에 복합외상의 경험은 발달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대인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그 문제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동기의 신체, 정서, 성적 학대 경험은 잠재적인 외상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학적, 대인관계적 발달에 위험을 준다(Cicchetti, 1995)는 보고에서 설명될 수 있다.

복합 외상의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같은 중요한 타인에 의한 반복적인 외상과 거절 경험은 자신을 결함이 있고, 무능하고, 불완전해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자기지각을 발달시킨다. 또한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무기력감을 느끼고, 자신은 무능력하며, 타인이 싫어할 것이라는 부정적 지각을 가질 수 있다(van der Kolk, 2001). 이렇듯 외상 경험이 자기 인식의 변화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타인과의 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askett(1990)은 학대받은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대인문제 해결력이 낮으며, 문제해결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정서적 학대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문제발생가능성을 높인다고(Straus, 1991)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아다미(2001)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에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은 소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학대경험이 없는 아동은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정희(1993)는 학대 가정 환경과 아동의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부적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아동기 때 벌을 많이 받고, 대화가 단절되었던 가정에서 양육된 성인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적이거나 회피적인 반응양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Luterek, Harb, Heimberg 와 Marx(2004)는 아동기에 성적학대를 당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의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 타인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와 비슷하게 Lewis(1971)는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동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고, 특히 상대방이 비판적이거나 거절하려는 듯 보일 때 더욱 분노를 표출하기 쉽다고 하였다. 청소년 학대 외상 중 방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안동현(2000)은 방임된 아동이 자기개념

의 손상으로 인한 무력감을 갖게 되고,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와 또래 관계의 이상, 학교 부적응, 정신병리 등의 문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기의 복합 외상경험은 정서, 신체,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변화를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인관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기의 복합 외상경험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청소년기 복합 외상경험과 대인관계 문제를 매개하는 변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c. 자동적 사고와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는 심리적 적응 문제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핵심적 문제 중 하나이다(Horowitz, 1979; Horowitz & de Sales French, 1979; Horowitz, de Sales French & Anderson, 1982; Horowitz & Vitkus, 1986; 이태영, 2011 재인용). 특히 대인관계문제는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적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 즉 우울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사실상 어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인관계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 연구에서도 임상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 중 우울한 사람들은 높은 빈도의 대인관계 갈등 사건을 보고한다고 하였다(Bamett & Gotlib, 1988; Blatt & Zuroff, 1992; Herman, 1992).

Beck(1990)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우울, 불안의 핵심요소로 지적하였다. 우울은 과거 개인적 상실과 실패의 자동적 사고와 심상이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불안은 개인 영역에서 예상되는 해로움이나 위험과 관련된 자동적 인지가 그 내용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이영화, 2011). 또한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활성화된 역기능적 신념과 우울 증상 사이를 자동적 사고가 매개하고 있다는 인지매개이론을 제안하였다(Beck, 1967; Beck, Rush, Shaw & Emery, 1979). 인지매개이론은 다양한 정서 장애나 성격장애를 설명하는데 적용되어 왔다(조용래, 1998). 또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많이 있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내재화되고 체계화된 인지적 사고의 틀인 부정적인 인지적 신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신의 병리적 부분이나 심리적 장애에 있어서 인지적 사고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5; Beck, 1991; Ellis, 1989). 즉,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우울증의 강력한 예측인자(Spence, Reinecke, 2003)이며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선하, 김춘경, 2006).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증상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 총점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으며 우울 인지와 상관도 매우 높았다(하은혜, 송동호, 2005). 다양한 정신장애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자동적사고가 하나의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장애는 대인관계문제와 연결이 된다.

C. 연구 문제 및 가설

이 연구는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부정적자동적사고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복합외상 경험자의 성별에 따라 부정적 사고,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동적 사고와 대인관계 문제가 더 높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광주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학급으로 표집 하여 2013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설문지는 총 573부이며, 그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분석이 곤란한 설문지 50부를 제외한 54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B. 측정도구

1. 외상경험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아동기 외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van der Kolk(1996)가 개발한 ‘외상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를 고나래(2007)가 번역, 역번역과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1가지 영역에 걸쳐 생애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유능감(competence)’, ‘안전(safety)’, ‘방임(neglect)’, ‘분리(separation)’, ‘비밀(secret)’,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목격(witnessing)’, ‘기타 외상(other traumas)’, ‘약물 및 알코올(drug and alcohol)’로 구성되었다. ‘유능감’과 ‘안전’은 외상 경험 발생에 저항하는 적응적 기능과 보호기능을 평가하여 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9가지 영역은 외상이나 심각한 사건에 얼마나 노출되었느냐를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빈번하고 심각한 외상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11가지 하위 요인 중 4가지 요인인 신체적 학대(5문항), 성적 학대(4문항), 정서적 학대 및 방임(6문항)만을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 반복적인 대인간 폭력이 복합 외상이라는 정의에 따라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복합 외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둘째 Luxenberg, Spinazzola, & van der Kolk (2001)의 보고에 따르면 임상 현장에서 TAQ의 점수가 높은 외상 경험자들이 복합 외상을 진단하는 Disorder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DESNOS) 증상과 상당한 연관을 보인다고 하였고, 특히 9가지 요인 중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DESNOS의 증상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라고 하였다. 고나래(2008)가 TAQ 척도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임’의 요인은 정서적 학대의 요인으로 포함될 수 있어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외상경험의 하위차원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그리고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살펴보았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0점: 전혀 없다 ~ 4점: 일주일에 여러 번 있었다)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45점에 분포할 수 있으며 총점이 0점인 학생은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피해경험이 많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고나래(2008)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02 이었고, 한수경(2013)은 .860, 김진희(2012)는 .872 이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 분석표 <표 3>에 함께 제시하였다.

2. 학교폭력 척도

이춘재, 광금주(2000)의 ‘집단따돌림 척도’를 기초로 하여, 학교폭력실태 조사보고서(학교폭력예방재단, 2006)의 신체폭행, 금품갈취, 위협/협박, 언어폭력,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 폭력의 7가지 피해유형을 사용한 정지선(2008)의 척도 중에 가해척도를 제외한 피해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0점: 전혀 없다 ~ 4점: 일주일에 여러 번 있었다)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총점이 0점인 학생은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피해경험이 많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한수경(2013)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척도의 신뢰도는 .780 이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 분석표 <표 3>에 함께 제시하였다.

3. 아동 청소년용 자동적 사고 척도(K-CATS: Korea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아동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Schniering 와 Rapee(2001)가 개발한 것으로 문경주, 오경자와 문혜신(2002)이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타당화 하였다. 총 32문항의 4요인(우울인지, 사회불안인지, 신체적 위협 인지, 적대적 인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자기진술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0점(전혀 없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문경주, 오경자와 문혜신(2002) 연구에서 아동 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의 신뢰도는 .94였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 분석표 <표 3>에 함께 제시하였다.

4.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e : KIIP-SC)

이 척도는 Horowitz 등(1988)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 와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검사이다. 이를 김영환 등(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IIP)의 단축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영환 등(2002)연구에서 신뢰도는 .61~.89, 고나래(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59, 한수경(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39 이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 분석표 <표 3>에 함께 제시하였다.

C. 연구 절차

설문 실시를 위해 사전에 학급의 담임선생님 또는 교과과목 선생님께서 연구목적과 실시시간,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명을 숙지한 학급의 교사가 청소년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학급단위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는 앞서 제시한 측정도구들을 모아 책사형태로 인쇄하여 사용하였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20분-30분이었다.

D.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변수들로부터 기저에 깔려있는 잠재적 구조를 찾아내고 데이터의 축소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에 의한 직각회전방식인 배리맥스회전 방식을 사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요인을 추출할 고유치(eigenvalue)는 1 이상의 값으로 추출하였으며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0.5 이하이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중복 적재되는 항목을 제거한 뒤,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집단 차이와 자동적사고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복합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복합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자동적사고를 매개변수로 한 매개모형을 설계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적합도에 따라 측정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모수 추정에는 최대 우도법이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는 Sobel 검증과 Bootstrap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이 매개효과의 정상성을 가정함과 달리 비모수 검증을 통해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에 0 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홍세희, 2012).

III. 연구 결과

A.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77	51.0
	여자	266	49.0
학교	중학교	208	38.3
	고등학교	335	61.7
학년	1학년	210	38.7
	2학년	128	23.6
	3학년	205	37.8
합계		543	100.0
		평균	표준편차
나이		15.58	0.923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51%(277명)이 남자이고 49%(266명)가 여자로 나타나, 비교적 응답자의 성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학교의 경우 중학교가 38.3%(208명)이고, 고등학교가 61.7%(335명)로 나타났으며, 학년의 경우 1학년이 38.7%(210명)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23.6%(128명), 3학년이 37.8%(205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나이는 평균 15.58세(SD=.923)였다.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응답자들의 복합외상경험, 부정적자동적사고,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선행연구보다 낮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였다. 복합외상경험의 평균은 0.277이며, 표준편차는 0.337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고나래(2008), 심현진(2012) 연구에서 제시했던 평균과 표준편차보다 낮았지만 복합외상 하위척도에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요인이 높고, 성적학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결과는 비슷하였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평균과 표준편차도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2002)의 연구에서 제시했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적대적인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는 같았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문제의 경우, 평균은 1.117이고 표준편차는 0.719로 비주장성, 사회적 억제, 자기희생, 과관여가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수경(2012)의 연구에서는 과순응성, 자기희생, 비주장성이 높았으며, 고나래(2008)는 과관여, 자기희생, 비주장성이 높았다.

<표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개념	하위변인	평균	표준편차
복합외상경험	전체	0.277	0.337
	정서적학대및방임	0.493	0.499
	신체적학대	0.327	0.538
	성적학대	0.070	0.271
	학교폭력	0.217	0.463
부정적 자동적 사고	전체	0.820	0.680
	사회불안인지	0.610	0.762
	적대적인지	1.378	0.959
	우울인지	0.756	0.825
	신체적위험인지	0.539	0.693
대인 관계 문제	전체	1.117	0.719
	비주장성	1.169	1.030
	냉담	0.780	0.925
	자기중심성	0.698	0.833
	사회적억제	1.250	1.068
	과순응성	1.105	0.910
	통제지배	0.942	0.786
	자기희생	1.758	1.058
과관여	1.230	0.949	

B.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내적일관성 검정을 통해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성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개념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가 기준치 0.7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개념에 대한 신뢰성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신뢰성 분석결과

	하위차원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복합적 외상경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6	6, 7, 18, 19, 20, 22,	0.720
	신체적 학대	5	21, 25, 26, 30, 32	0.812
	성적학대	4	37, 38, 39, 40	0.810
	학교폭력	7	1, 2, 3, 4, 5, 6, 7	0.844
자동적 사고	사회불안 인지	10	1, 6, 8, 14, 18, 21, 25, 29, 31, 32	0.940
	적대적 인지	6	2, 15, 19, 22, 37, 40	0.857
	우울인지	10	3, 7, 11, 13, 23, 26, 28, 30, 36, 38	0.935
	신체적 위협 인지	6	4, 12, 20, 24, 33, 39	0.858
대인 관계 문제	비주장성	5	1, 3, 5, 11, 16	0.919
	냉담	5	2, 8, 9, 15, 18	0.893
	사회적 억제	5	4, 12, 17, 31, 36	0.867
	자기중심성	5	6, 7, 10, 13, 22	0.800
	과순응성	5	14, 23, 34, 37, 39	0.851
	통제 지배	5	19, 21, 27, 30, 33	0.825
	자기희생	5	20, 24, 25, 32, 40	0.800
	과관여	5	26, 28, 29, 35, 38	0.810

다음 단계로 일련의 변수들로부터 기저에 깔려있는 잠재적 구조를 찾아내고 데이터의 축소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에 의한 직각회전방식인 배리맥스회전 방식을 사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요인을 추

출할 고유치(eigenvalue)는 1 이상의 값으로 추출하였으며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0.5 이하이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중복 적재되는 항목을 제외하고자 하였다.

복합외상 경험 척도에 대한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4개 추출되었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5 문항은 어떤 요인에도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으로 적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1개의 문항을 제외한 후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복합외상 경험 척도에 대한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정서적학대 및 방임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학교폭력	결과
정서적학대및방임1	0.580	0.080	0.253	0.059	
정서적학대및방임2	0.577	0.001	0.157	0.111	
정서적학대및방임3	0.674	0.257	0.078	0.082	
정서적학대및방임4	0.675	0.222	-0.092	0.162	
정서적학대및방임5	0.656	0.238	0.121	0.085	
정서적학대및방임6	0.655	0.405	0.209	0.023	
신체적학대1	0.294	0.586	0.069	0.179	
신체적학대2	0.088	0.843	0.118	0.109	
신체적학대3	0.160	0.711	0.338	0.066	
신체적학대4	0.209	0.719	0.204	0.167	
신체적학대5	0.237	0.445	0.324	0.406	√
성적학대1	0.167	0.331	0.520	0.167	
성적학대2	0.172	0.180	0.792	0.094	
성적학대3	0.115	0.239	0.793	0.123	
성적학대4	0.110	0.166	0.828	0.212	
학교폭력1	0.011	0.283	-0.042	0.656	
학교폭력2	0.094	0.090	0.288	0.635	
학교폭력3	0.070	0.030	0.403	0.660	
학교폭력4	0.150	0.203	-0.040	0.808	
학교폭력5	0.078	0.023	0.038	0.837	
학교폭력6	0.123	0.075	0.152	0.696	
학교폭력7	0.198	0.013	0.417	0.546	
고유값	2.534	2.979	3.101	3.799	
누적설명분산(%)	11.518	25.060	39.154	56.423	

<표 5> 복합외상 경험 척도에 대한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학교폭력
정서적학대및방임1	0.577	0.078	0.254	0.058
정서적학대및방임2	0.571	0.003	0.157	0.110
정서적학대및방임3	0.678	0.251	0.082	0.083
정서적학대및방임4	0.679	0.215	-0.089	0.162
정서적학대및방임5	0.663	0.225	0.124	0.083
정서적학대및방임6	0.655	0.407	0.213	0.027
신체적학대1	0.287	0.606	0.075	0.191
신체적학대2	0.088	0.854	0.126	0.120
신체적학대3	0.160	0.717	0.344	0.073
신체적학대4	0.219	0.698	0.210	0.164
성적학대1	0.179	0.305	0.525	0.162
성적학대2	0.176	0.171	0.796	0.094
성적학대3	0.118	0.231	0.796	0.123
성적학대4	0.110	0.163	0.830	0.213
학교폭력1	0.023	0.269	-0.036	0.657
학교폭력2	0.094	0.094	0.292	0.640
학교폭력3	0.067	0.026	0.403	0.659
학교폭력4	0.158	0.191	-0.035	0.808
학교폭력5	0.080	0.015	0.040	0.836
학교폭력6	0.119	0.081	0.154	0.701
학교폭력7	0.194	0.012	0.418	0.546
고유값	1.240	1.707	2.345	6.641
누적설명분산(%)	5.906	14.035	25.203	56.827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별 측정 항목의 요인 부하량이 0.5를 넘었고, 4개의 변수가 전체 분산의 약 5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동적 사고 척도에 대한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4개 추출되었다. 그러나 우울인지2 문항은 어떤 요인에도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으로 적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1개의 문항을 제외한 후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자동적 사고 척도에 대한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불안인지	적대적인지	우울인지	신체적 위험인지	결과
사회불안인지1	0.711	0.115	0.317	0.062	
사회불안인지2	0.677	0.204	0.152	0.290	
사회불안인지3	0.781	0.186	0.280	0.213	
사회불안인지4	0.743	0.156	0.360	0.163	
사회불안인지5	0.590	0.265	0.376	0.190	
사회불안인지6	0.742	0.239	0.188	0.212	
사회불안인지7	0.624	0.123	0.405	0.225	
사회불안인지8	0.722	0.114	0.321	0.252	
사회불안인지9	0.601	0.232	0.301	0.314	
사회불안인지10	0.717	0.129	0.346	0.236	
적대적인지1	0.211	0.772	0.167	0.105	
적대적인지2	0.191	0.702	0.240	0.144	
적대적인지3	0.111	0.803	0.130	0.189	
적대적인지4	0.350	0.542	0.039	0.207	
적대적인지5	0.180	0.688	0.213	0.205	
적대적인지6	0.054	0.726	0.152	0.152	
우울인지1	0.366	0.186	0.665	0.113	
우울인지2	0.434	0.280	0.461	0.232	√
우울인지3	0.377	0.134	0.715	0.167	
우울인지4	0.334	0.333	0.606	0.114	
우울인지5	0.168	0.135	0.769	0.246	
우울인지6	0.393	0.185	0.675	0.223	
우울인지7	0.278	0.127	0.788	0.203	
우울인지8	0.229	0.136	0.731	0.228	
우울인지9	0.393	0.245	0.564	0.277	
우울인지10	0.303	0.200	0.663	0.291	
신체적위험인지1	0.286	0.180	0.209	0.680	
신체적위험인지2	0.174	0.212	0.152	0.720	
신체적위험인지3	0.362	0.175	0.147	0.731	
신체적위험인지4	0.185	0.193	0.442	0.611	
신체적위험인지5	0.259	0.184	0.239	0.543	
신체적위험인지6	0.122	0.176	0.254	0.702	
고유값	6.555	4.006	6.056	3.831	
누적설명분산(%)	20.484	31.444	43.417	75.041	

<표 7> 자동적 사고 척도에 대한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불안인지	적대적인지	우울인지	신체적위협인지
사회불안인지1	0.713	0.119	0.320	0.060
사회불안인지2	0.675	0.203	0.146	0.295
사회불안인지3	0.779	0.185	0.273	0.217
사회불안인지4	0.743	0.159	0.359	0.163
사회불안인지5	0.590	0.265	0.372	0.195
사회불안인지6	0.742	0.240	0.186	0.215
사회불안인지7	0.626	0.127	0.407	0.224
사회불안인지8	0.724	0.118	0.323	0.251
사회불안인지9	0.600	0.232	0.297	0.316
사회불안인지10	0.719	0.131	0.346	0.236
적대적인지1	0.210	0.771	0.162	0.109
적대적인지2	0.191	0.702	0.235	0.148
적대적인지3	0.110	0.802	0.125	0.192
적대적인지4	0.348	0.541	0.036	0.208
적대적인지5	0.181	0.691	0.215	0.202
적대적인지6	0.056	0.730	0.157	0.147
우울인지1	0.368	0.190	0.666	0.114
우울인지3	0.377	0.135	0.710	0.171
우울인지4	0.334	0.334	0.601	0.117
우울인지5	0.170	0.138	0.769	0.247
우울인지6	0.396	0.190	0.679	0.221
우울인지7	0.280	0.130	0.789	0.203
우울인지8	0.229	0.136	0.726	0.233
우울인지9	0.394	0.247	0.562	0.279
우울인지10	0.304	0.202	0.662	0.291
신체적위협인지1	0.284	0.180	0.205	0.683
신체적위협인지2	0.174	0.212	0.152	0.720
신체적위협인지3	0.359	0.173	0.140	0.735
신체적위협인지4	0.183	0.192	0.437	0.615
신체적위협인지5	0.259	0.186	0.241	0.540
신체적위협인지6	0.123	0.179	0.258	0.698
고유값	6.375	3.947	5.813	3.800
누적설명분산(%)	20.564	33.296	52.047	64.304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1개 문항을 제거한 후 나머지 문항들에 대한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 값이 1이상인 요인이 4개 추출되었고, 각 요인별 측정 항목의 요인 부하량이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변수가 전체 분산의 약 6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인 관계 문제 척도에 대한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8개 추출되었다. 그러나 비주장성 차원의 경우 비주장성5 문항이 2개 요인에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으로 중복 적재되고, 냉담 차원의 경우 냉담1 문항과 냉담5 문항이 2개 요인에 대해 중복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억제 차원에서는 사회적 억제1 문항과 사회적 억제2 문항이 2개 요인에 중복 적재되고, 자기중심성 차원의 경우 자기중심성1 문항과 자기중심성2 문항이 어떤 요인에도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으로 적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순응성 차원의 경우 과순응성1 문항이 어떤 요인에서 0.5 이상으로 적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지배의 경우 통제지배3 문항이 어떤 요인에도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으로 적재되지 않으며, 자기희생 차원에서는 자기희생4 문항이 2개 요인에 중복 적재되고, 자기희생5 문항이 어떤 요인에도 0.5 이상으로 적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관여 차원의 경우 과관여5 문항이 대인 관계 문제에 대한 8개 하위요인 어디에서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으로 적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12개의 문항을 제외한 후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 대인관계문제 척도에 대한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비주장 성	냉담	사회적 억제	자기 중심성	과순응 성	통제 지배	자기 희생	과관여	결 과
비주장성1	0.760	0.183	0.113	0.043	0.149	0.057	0.192	0.184	
비주장성2	0.812	0.012	0.075	0.110	0.193	0.139	0.144	0.152	
비주장성3	0.747	0.126	0.066	0.169	0.249	0.034	0.169	0.108	
비주장성4	0.737	0.144	0.130	0.324	0.292	-0.029	0.114	0.102	
비주장성5	0.705	0.148	0.157	0.519	0.205	0.006	0.053	0.165	∨
냉담1	0.812	-0.127	0.164	0.514	0.039	0.136	0.081	0.066	∨
냉담2	0.423	0.646	0.059	0.008	0.064	0.211	0.040	0.107	
냉담3	0.441	0.613	0.045	-0.048	0.076	0.239	0.045	0.079	
냉담4	0.424	0.675	0.193	0.170	0.021	0.133	0.064	0.043	
냉담5	0.685	-0.123	0.638	0.355	0.056	0.121	0.100	0.070	∨
사회적억제1	0.760	-0.124	0.190	0.507	0.091	0.169	0.078	0.079	∨
사회적억제2	0.730	0.022	0.206	0.554	0.121	0.100	0.080	0.088	∨
사회적억제3	0.441	0.061	0.713	0.264	0.137	0.113	0.138	0.090	
사회적억제4	0.299	-0.011	0.740	0.237	0.179	0.243	0.127	0.153	
사회적억제5	0.365	0.115	0.677	0.055	0.229	0.045	0.215	0.254	
자기중심성1	0.377	0.257	0.063	0.632	0.062	0.176	-0.001	0.109	∨
자기중심성2	0.242	0.424	0.101	0.396	-0.002	0.153	0.036	-0.001	∨
자기중심성3	0.223	0.070	0.190	0.732	0.158	0.148	0.023	0.165	
자기중심성4	0.341	0.124	0.075	0.742	0.114	0.199	0.058	0.100	
자기중심성5	0.319	0.089	0.102	0.783	0.132	0.035	0.010	0.157	
과순응성1	0.698	0.251	0.061	0.165	0.180	-0.008	0.215	0.189	∨
과순응성2	0.203	-0.094	0.119	0.181	0.694	0.108	0.318	0.075	
과순응성3	0.285	-0.007	0.109	0.169	0.693	0.113	0.257	0.247	
과순응성4	0.471	0.178	0.236	0.116	0.511	0.159	0.168	0.222	
과순응성5	0.375	0.067	0.237	0.129	0.611	0.251	0.102	0.269	
통제지배1	0.239	0.045	0.056	0.133	0.050	0.786	0.117	0.165	
통제지배2	-0.023	0.023	0.024	0.164	0.073	0.797	0.184	0.191	
통제지배3	0.069	-0.151	0.176	0.447	0.006	0.332	0.119	0.489	∨
통제지배4	0.103	0.049	0.123	0.232	0.199	0.686	0.044	0.305	
통제지배5	0.238	0.011	0.204	0.213	0.268	0.551	0.082	0.268	
자기희생1	0.092	-0.095	0.000	0.084	0.425	0.058	0.753	0.054	
자기희생2	0.262	0.129	0.163	0.055	0.079	0.146	0.732	0.265	
자기희생3	0.303	0.054	0.175	0.082	0.094	0.140	0.726	0.266	
자기희생4	0.079	-0.008	0.058	-0.060	0.538	0.095	0.638	0.185	∨
자기희생5	0.404	0.160	0.138	-0.020	0.413	0.273	0.183	0.261	∨
과관여1	0.135	0.078	0.085	0.070	-0.029	0.112	0.386	0.726	
과관여2	0.104	-0.057	0.128	0.233	0.138	0.425	0.178	0.586	
과관여3	0.289	0.072	0.106	0.042	0.275	0.253	0.200	0.635	
과관여4	0.106	-0.007	0.024	0.138	0.200	0.198	0.165	0.787	
과관여5	0.137	0.142	0.257	0.173	0.225	0.407	0.025	0.326	∨
고유값	8.500	1.031	2.264	4.553	2.770	3.105	3.004	3.489	
누적설명분산 (%)	21.250	23.829	29.49	40.871	47.797	55.56	63.07	71.794	

<표 9> 대인관계문제 척도에 대한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비주장 성	냉담	사회적억 제	자기중심 성	과순응성	통제지 배	자기희 생	과관여
비주장성1	0.811	0.118	0.118	0.196	0.081	0.067	0.184	0.169
비주장성2	0.783	0.242	0.123	0.167	0.174	0.134	0.132	0.151
비주장성3	0.774	0.155	0.225	0.139	0.210	0.045	0.162	0.094
비주장성4	0.688	0.256	0.359	0.207	0.264	-0.029	0.105	0.108
냉담2	0.304	0.738	0.425	0.141	0.099	0.142	0.062	0.157
냉담3	0.308	0.752	0.391	0.128	0.115	0.165	0.065	0.130
냉담4	0.453	0.512	0.272	0.290	0.032	0.120	0.100	0.047
사회적억제3	0.165	0.121	0.816	0.205	0.122	0.200	0.038	0.143
사회적억제4	0.242	0.324	0.733	0.113	0.109	0.222	0.079	0.103
사회적억제5	0.231	0.235	0.829	0.134	0.099	0.066	0.027	0.144
자기중심성3	0.327	0.177	0.249	0.765	0.132	0.107	0.144	0.088
자기중심성4	0.144	0.248	0.160	0.789	0.191	0.201	0.114	0.181
자기중심성5	0.339	-0.043	0.129	0.713	0.197	0.045	0.190	0.256
과순응성2	0.163	0.071	0.126	0.159	0.768	0.112	0.219	0.118
과순응성3	0.302	0.014	0.181	0.146	0.697	0.119	0.155	0.293
과순응성4	0.459	0.028	0.163	0.290	0.527	0.171	0.117	0.233
과순응성5	0.343	0.191	0.090	0.307	0.571	0.212	0.036	0.312
통제지배1	0.211	0.185	0.066	0.110	0.057	0.804	0.096	0.177
통제지배2	-0.031	-0.006	0.163	0.037	0.089	0.822	0.180	0.207
통제지배4	0.055	0.144	0.198	0.169	0.191	0.680	-0.013	0.344
통제지배5	0.161	0.251	0.128	0.252	0.233	0.587	0.061	0.222
자기희생1	0.062	0.108	-0.028	0.002	0.570	0.035	0.664	0.110
자기희생2	0.227	0.065	0.052	0.195	0.138	0.153	0.772	0.259
자기희생3	0.277	0.027	0.101	0.188	0.164	0.142	0.758	0.261
과관여1	0.120	0.021	0.072	0.113	-0.037	0.125	0.429	0.706
과관여2	0.078	0.036	0.216	0.143	0.156	0.429	0.132	0.603
과관여3	0.278	0.024	0.075	0.148	0.256	0.231	0.152	0.680
과관여4	0.076	0.094	0.102	0.049	0.185	0.162	0.121	0.832
고유값	3.940	1.992	2.860	2.498	2.514	2.495	2.168	3.224
누적설명분산 (%)	14.071	21.185	31.401	40.322	49.299	58.21	65.952	77.467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12개 문항을 제외한 후 대인 관계 문제를 측정하는 나머지 문항들에 대한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 값이 1이상인 요인이 8개 추출되었고, 각 요인별 측정 항목의 요인 부하량이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개의 변수가 전체 분산의 약 7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차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구성된 복합외상 경험척도, 부정적자동적사고척도,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하위변수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하위변수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도출되어 내적일관성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표 10> 최종 신뢰성 분석결과

	하위차원	문항 수		Cronbach's α
		초기	최종	
복합적 외상경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6	6	0.720
	신체적 학대	5	4	0.798
	성적학대	4	4	0.810
	학교폭력	7	7	0.844
부정적 자동적 사고	사회불안 인지	10	10	0.940
	적대적 인지	6	6	0.857
	우울인지	10	9	0.932
	신체적 위협 인지	6	6	0.858
대인 관계 문제	비주장성	5	4	0.908
	냉담	5	3	0.871
	사회적 억제	5	3	0.875
	자기중심성	5	3	0.887
	과순응성	5	4	0.855
	통제 지배	5	4	0.806
	자기희생	5	3	0.833
	과관여	5	4	0.846

또한 잠재요인에 대한 측정도구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화 요인하량과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구성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도출하였다.

<표 11>에 정리된 바와 같이 모든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0.5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 분산 추출값(AVE)은 0.514에서 0.622의 범위를 보여 기준치인 0.5를 상회하며, 구성개념신뢰도(CR)는 0.734에서 0.869의 범위를 보여 기준치인 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구성개념이 집중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1> 집중타당성 평가

개념	하위변수	요인계수	표준오차	t값	개념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 (AVE)
복합적 외상경험	학교폭력	0.720			0.869	0.522
	성적학대	0.606	0.055	10.407***		
	신체적학대	0.768	0.116	11.148***		
	정서적학대및방임	0.782	0.116	11.431***		
부정적 자동적 사고	사회불안인지	0.877			0.746	0.622
	적대적인지	0.627	0.056	16.231***		
	우울인지	0.866	0.041	25.964***		
	신체적위협인지	0.760	0.037	21.153***		
대인 관계 문제	비주장성	0.824			0.734	0.514
	냉담	0.675	0.039	19.021***		
	자기중심성	0.652	0.040	16.006***		
	사회적억제	0.734	0.050	18.487***		
	과순응성	0.808	0.042	20.879***		
	통제지배	0.702	0.044	14.658***		
	자기희생	0.617	0.052	14.785***		
과관여	0.700	0.051	15.315***			

*** p<.001

<표 12> 판별타당성 평가

	복합 외상경험	자동적 사고	대인 관계 문제
복합 외상경험	0.522	0.436	0.295
부정적 자동적 사고	0.660***	0.622	0.420
대인 관계 문제	0.543***	0.648***	0.514

주) 대각선의 값은 각 변인의 AVE값, 대각선 아래는 각 이론변인간의 상관계수, 대각선 위는 각 변인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임. *** p<.001

특정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과 얼마나 다른가를 나타내는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두 이론변인 각각의 AVE와 그 두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을 비교하여 두 AVE가 모두 상관계수 제곱보다 크가를 확인하였다. <표 12>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AVE의 최소 값은 0.514이며 상관계수 제곱 값의 최대 값은 0.436으로 각각의 AVE가 모두 상관계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학식, 임지훈, 2009).

C.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 부정적자동적사고,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를 보면 각 변인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합외상경험은 부정적자동적사고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 = .536, p < .01$), 사회불안인지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532, p < .01$). 부정적자동적사고는 대인관계문제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 = .654, p < .01$),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나($r = .459, p < .01$), 대인관계문제 하위영역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표 13>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 부정적자동적사고, 대인관계 문제 간 상관관계

(N=54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복합외상경험	1																			
2. 정서적학대및방임	.789**	1																		
3. 신체적학대	.823**	.540**	1																	
4. 성적학대	.693**	.432**	.482**	1																
5. 학교폭력	.700**	.342**	.370**	.408**	1															
6. 부정적자동적사고	.536**	.460**	.402**	.291**	.428	1														
7. 사회불안인지	.533**	.424**	.394**	.290**	.469**	.867**	1													
8. 적대적인지	.299**	.248**	.214**	.142**	.273**	.802**	.535**	1												
9. 우울인지	.523**	.485**	.401**	.258**	.385**	.872**	.766**	.533**	1											
10. 신체적위협인지	.482**	.420**	.371**	.323**	.330**	.827**	.655**	.541**	.655**	1										
11. 대인관계문제	.459**	.392**	.319**	.275**	.383**	.654**	.640**	.467**	.598**	.509**	1									
12. 비주장성	.380**	.316**	.251**	.212**	.352**	.540**	.593**	.339**	.526**	.373**	.807**	1								
13. 냉담	.365**	.334**	.240**	.224**	.293**	.470**	.453**	.317**	.457**	.367**	.761**	.683**	1							
14. 자기중심성	.367**	.303**	.264**	.301**	.259**	.433**	.388**	.341**	.381**	.348**	.716**	.559**	.716**	1						
15. 사회적억제	.311**	.259**	.205**	.185**	.280**	.462**	.472**	.331**	.402**	.361**	.793**	.619**	.555**	.506**	1					
16. 과순응성	.365**	.323**	.248**	.221**	.296**	.528**	.556**	.271**	.542**	.443**	.827**	.665**	.505**	.479**	.629**	1				
17. 통제지배	.404**	.349**	.305**	.255**	.297**	.532**	.464**	.408**	.469**	.455**	.722**	.392**	.474**	.493**	.485**	.543**	1			
18. 자기희생	.245**	.212**	.171**	.085**	.235**	.485**	.440**	.390**	.433**	.364**	.709**	.497**	.343**	.288**	.481**	.610**	.432**	1		
19. 과관여	.389**	.320**	.288**	.229**	.320**	.535**	.513**	.449**	.433**	.401**	.744**	.435**	.384**	.398**	.487**	.585**	.681**	.576**	1	

**p < .01

D. 집단에 따른 차이 검증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검증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정적자동적사고와 대인관계문제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복합외상경험의 유형 중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폭력($t=2.769, p<0.01$)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 ($t=-2.340, p<0.05$). 따라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부정적자동적사고와 대인관계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부정적자동적사고와 대인관계 문제의 하위 요인 간 차이를 살펴보면, 부정적자동적사고의 하위요인의 경우 사회불안인지($t=-2.063, p<0.05$)와 신체적 위협인지($t=-2.336, p<0.05$)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적대적인지와 우울인지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의 경우 비주장성, 냉담, 자기중심성, 과순응성, 통제지배, 자기희생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적 억제와 과관여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검증

변인		남학생 (N=277)	여학생 (N=266)	평균 차이	t값
복합 외상	전체	0.301(0.378)	0.252(0.287)	0.049	1.697
	정서적학대및방임	0.518(0.519)	0.467(0.477)	0.051	1.197
	신체적학대	0.332(0.545)	0.321(0.533)	0.011	0.231
	성적학대	0.083(0.321)	0.057(0.208)	0.026	1.112
	학교폭력	0.270(0.545)	0.161(0.351)	0.109	2.769**
부정적 자동적 사고	전체	0.754 (0.671)	0.890 (0.685)	-0.136	-2.340*
	사회불안인지	0.544 (0.753)	0.678 (0.767)	-0.134	-2.063*
	적대적인지	1.309 (0.959)	1.448 (0.957)	-0.139	-1.687
	우울인지	0.690 (0.798)	0.823 (0.850)	-0.133	-1.881
	신체적위험인지	0.471 (0.685)	0.610 (0.697)	-0.139	-2.336*
대인 관계 문제	전체	1.015 (0.722)	1.223 (0.702)	-0.208	-3.412**
	비주장성	1.019 (0.999)	1.326 (1.042)	-0.307	-3.507***
	냉담	0.653 (0.896)	0.914 (0.939)	-0.260	-3.304**
	자기중심성	0.593 (0.849)	0.807 (0.804)	-0.214	-3.010**
	사회적억제	1.187 (1.092)	1.317 (1.041)	-0.130	-1.425
	과순응성	0.974 (0.905)	1.243 (0.897)	-0.269	-3.485**
	통제지배	0.869 (0.800)	1.018 (0.764)	-0.149	-2.213*
	자기희생	1.650 (1.105)	1.871 (0.996)	-0.221	-2.445*
	과관여	1.172 (0.982)	1.291 (0.912)	-0.119	-1.461

* p<.05, ** p<.01, *** p<.001

E.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

1.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신뢰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후에 복합 외상경험, 부정적자동적 사고, 그리고 대인 관계 문제가 예상요인들을 구성하고 예상요인의 개수도 적중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모수추정은 최대 우도법이 사용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대신 적합도 지수를 이용했는데, χ^2 검증의 영가설(모형이 자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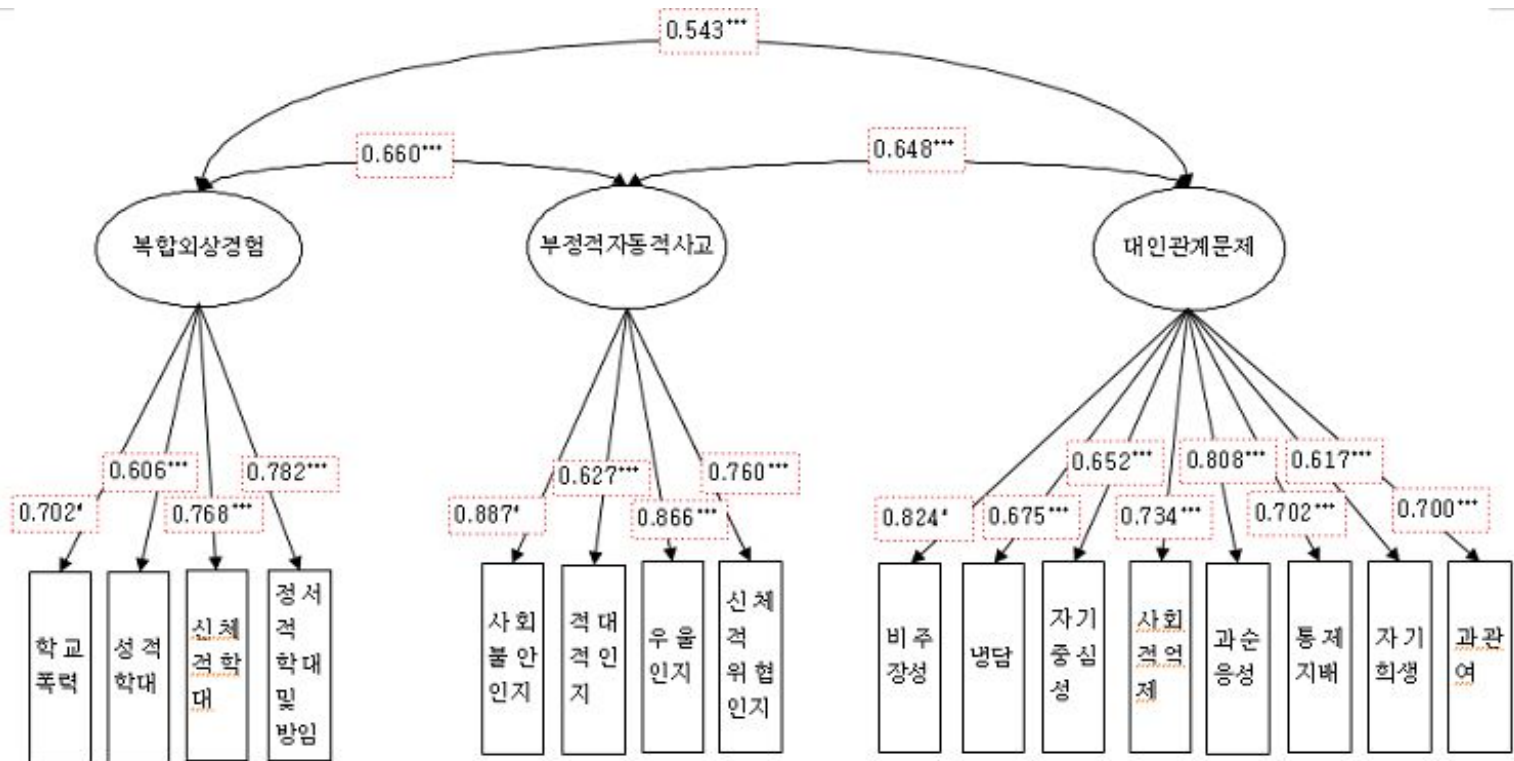
완벽하게 설명한다)은 엄격해서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표본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적합도 지수중에서 표본 크기에 대한 민감성이 덜한 TLI(Tucker 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이 지수들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는 모형의 설명력 뿐만 아니라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TLI, CFI 값은 0.9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경우 GFI, AGFI, NFI, TLI, CFI, RMSEA가 모두 모형을 수용 가능한 기준을 만족시켰다.

<표 15>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GFI	AGFI	N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306.086***	91	0.934	0.902	0.937	0.941	0.955	0.066
수용기준	p>0.05이면 바람직		≥0.9	≥0.9	≥0.9	≥0.9	≥0.9	≤0.08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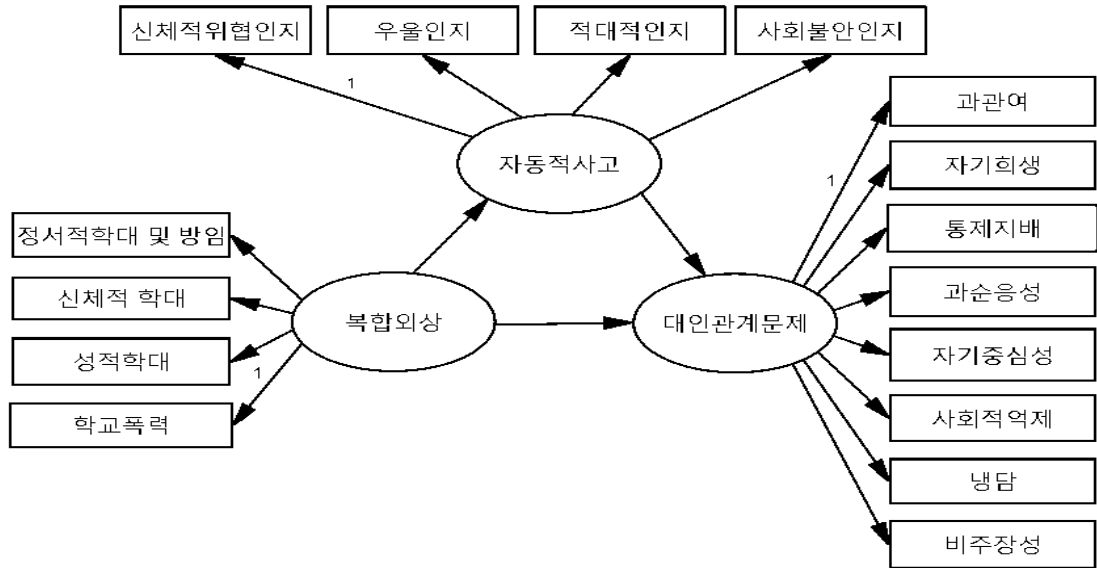
<그림 1>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복합외상경험의 측정변인은 .606~.782 의 요인 부하량을, 부정적자동적 사고의 측정 변인들은 .627 ~ .887을, 대인관계문제의 측정변인들은 .617 ~ .824 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냄으로써 요인 부하량 모두 .5 이상을 충족시켰으며 요인 부하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그림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2.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모형은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부정적자동적사고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측정하는 매개모형으로서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이 272.212이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모형은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χ^2 을 통한 모형의 유의성 검정의 경우 χ^2 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작은 편차도 유의해져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표본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어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다(배병렬, 2011). 따라서 χ^2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FI(=0.940), AGFI(=0.907), NFI(=0.947), TLI(=0.947), CFI(=0.961) 지수들이 0.9를 상회하며, RMSEA는 0.062로 기준치인 0.08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χ^2	d.f	GFI	AGFI	N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272.212	88	0.940	0.907	0.944	0.947	0.961	0.062
수용기준	p>0.05이면 바람직		≥0.9	≥0.9	≥0.9	≥0.9	≥0.9	≤0.08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 자동적 사고 그리고 대인관계문제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복합 외상경험을 독립변수, 자동적 사고를 매개변수, 그리고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세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와 같다.

<표 17>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복합 외상경험	→ 자동적 사고	1.503	0.661	0.143	10.537***
복합 외상경험	→ 대인 관계 문제	0.336	0.118	0.156	2.152*
자동적 사고	→ 대인 관계 문제	0.818	0.654	0.071	11.565***

* p<.05, ** p<.01, *** p<.001

청소년의 복합 외상경험이 자동적 사고와 대인 관계 문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복합 외상경험은 자동적 사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0.661, t=10.537, p<0.001). 따라서 청소년의 복합 외상경험의 정도가 커질수록 자동적 사고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복합 외상경험이 대인 관계 문제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0.118, t=2.152, p<0.05). 따라서 청소년의 복합 외상경험의 정도가 커질수록 대인 관계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자동적 사고가 대인 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동적 사고는 대인 관계 문제에 유의한 정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적사고→대인관계문제: 경로계수=0.654, t=11.565, p<0.001).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정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을 이용하였다. Sobel 검정에서 검정통계량인 z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a, 종속변수에 대

한 매개변수의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b, 표준오차가 s일 때, $z = \frac{a \times b}{\sqrt{(b^2 \times s_a^2 + a^2 \times s_b^2)}}$ 이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표 17 >에 제시된 바와 같이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복합 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부정적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 ($z = \frac{1.503 \times 0.818}{\sqrt{(0.818^2 \times 0.143^2 + 1.503^2 \times 0.071^2)}} = 7.765$, $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적 사고는 복합 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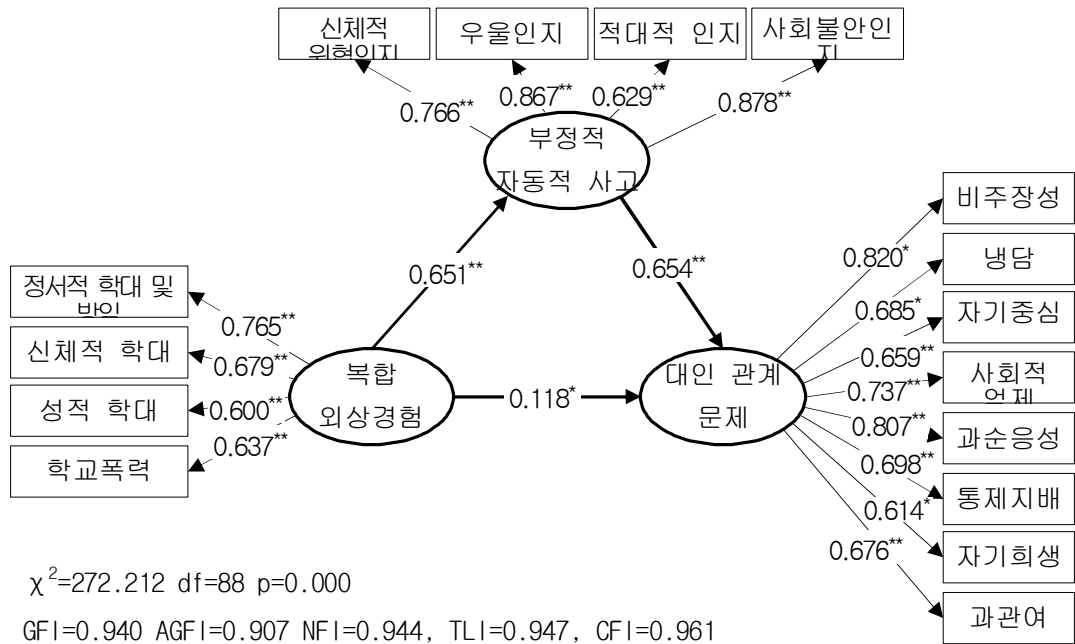
<표 18>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매개효과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복합외상경험→자동적 사고→대인관계 문제	0.432**	0.06	(0.354, 0.518)

부정적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표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복합 외상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부정적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는 0.432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부트스트래핑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매개효과의 대한 유의도와 함께 그 각각의 하한과 상한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트스트래핑에서 제시하고 있는 p값 검증에 의해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추정된 95% 신뢰구간의 하한 및 상한에 0 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매개변수인 부정적자동적 사고에 대한 복합 외상경험의 효과는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복합 외상경험이 부정적자동적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 관계 문제에 대한 복합 외상경험의 직접효과 충족되며, 부정적자동적사고가 대인 관계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충족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부정적자동적사고는 복합 외상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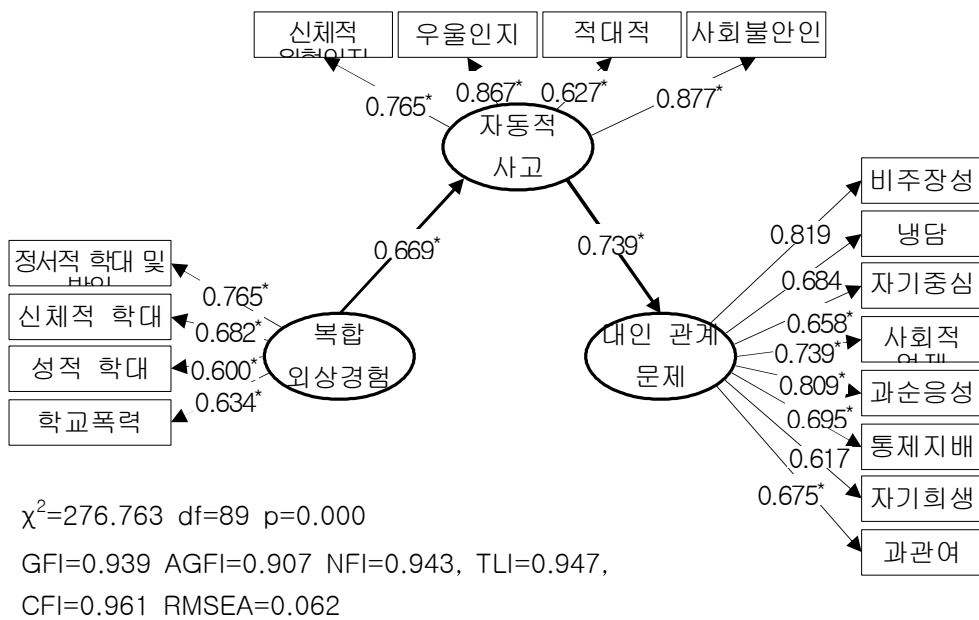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본 연구는 Sobel 검정을 통해 확인된 매개효과가 부분매개효과인지 완전매개효과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복합 외상경험이 자동적 사고를 거쳐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즉, 완전 매개되는 경쟁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복합 외상경험이 자동적 사고를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별 적합도 지수 및 χ^2 값의 변화량을 비교함으로써 부분매개효과인지 완전매개효과인지를 구분하였다.

<표 19>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p값	GFI	AGFI	RMSEA	TLI	CFI
연구모형 (부분매개모형)	272.212	88	0.000	0.940	0.907	0.062	0.947	0.961
경쟁모형 (완전매개모형)	276.763	89	0.000	0.939	0.907	0.062	0.947	0.961
△	4.551	1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은 내포된(Nested) 관계에 있으므로 χ^2 값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두 모형의 우수성을 판별할 수 있다. <표 19>과 같이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은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에 비해 자유도가 1 증가하였을 때 χ^2 값이 4.551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χ^2 의 차이가 임계치인 3.84보다 크므로 연구모형의 경우 모델이 더욱 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그림 3>의 연구모형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합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동적 사고의 매개를 토대로 대인관계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 경쟁모형 분석결과

복합 외상경험, 부정적자동적 사고 그리고 대인관계문제의 영향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효과분석으로 성별차이에 대한 검정 결과는 <표 20>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개념들 간의 관계가 자유로운 모형(free model)과 경로계수가 각각 동일하다는 제약을 설정한 모형(제약모형)을 비교하였다. 제약모형은 자유모형보다 자유도가 1만큼 커질 것이며, χ^2 값도 커질 것이다. 만약 $\Delta \chi^2(1)$ 값이 3.84보다 크면 자유모형이 제약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경로계수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분석결과 복합 외상경험이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합 외상경험→자동적 사고의 경로에 대한 제약모형과 자유모형의 $\Delta \chi^2$ 은 10.65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성별 경로 분석

경로	남학생			여학생			$\Delta \chi^2$ (Δ d. f=1)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t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t	
복합외상경험→부정적자동적사고	1.217	0.667	8.460***	2.324	0.670	6.118***	10.653**
복합외상경험→대인관계문제	0.258	0.124	1.670 [†]	0.609	0.133	1.592	0.734
자동적 사고→대인관계문제	0.785	0.681	8.423***	0.801	0.606	7.397***	0.012

† p<.1, * p<.05, ** p<.01, *** p<.001

성별에 대한 매개효과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첫째, 복합 외상경험이 부정적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로계수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표준화 경로계수=0.667, t값=8.460, p<0.001; 여성: 표준화 경로계수=0.670, t=6.118, p<0.001), 제약모형과 자유모형 간 χ^2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Delta \chi^2=10.653$, p<0.01). 따라서 복합 외상경험이 부정적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 복합 외상경험의 정도가 커질수록 부정적자동적 사고는 증가하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 그 영향력이 증가하는 정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복합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로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정적자동적 사고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로계수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표준화 경로계수=0.785, t=8.423, p<0.001; 여성: 표준화 경로계수=0.606, t=7.397, p<0.001). 그러나 부정적자동적 사고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chi^2=0.012$, p>0.05).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543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행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외상경험과 부정적자동적사고, 대인관계문제를 상호 연관성을 분석해서 연구 모형이 간단해질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전체 자료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줄이는 기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집중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과 얼마나 다른가를 나타내는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두 이론 변인 각각의 AVE와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을 비교하였는데 AVE의 최소 값 0.514, 최대 값 0.436으로 상관계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에도 문제는 없었다. 본 연구는 한국형대인관계문제 검사에서 40문항 중 12문항이 제외되었는데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의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구성 연구에서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각 척도별로 구체적인 대인관계적 문제유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각 문항의 변별도와 문항정보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위치모수의 간격을 검토한 결과, 문항 변별도가 높을수록 위치모수 간격이 균일하였고 문항변별도의 크기 순서와 문항 정보 함수의 크기 순서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척도별로 1~2 문항씩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2002)의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연구에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의 경우 80문항 중 8개 원형척도이고, 중복되는 문항은 하위척도별로 4~6개, 총 46문항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두 연구 모두 성인과 대학생 표본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결과와 달리 문항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나 중복 적재되는 문항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 부정적자동적사고,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복합외상, 부정적 자동적사고, 대인관계문제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복합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자동적사고와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

여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많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고나래, 2008; 김진희, 2012; 한수경, 2013; 이태영, 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복합외상경험의 유형 중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학교폭력을 상대적으로 더 자주 경험하였으며, 부정적자동적사고와 대인관계문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부정적자동적 사고의 하위요인간 차이는 사회불안인지, 신체적 위협인지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적대적 인지와 우울인지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의 경우 비주장성, 냉담, 자기중심성, 과순응성, 통제지배, 자기희생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사회적 억제와 과관여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niering & Rapee(2001)연구에서 사회불안인지와 우울인지는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였고, 적대적인지는 남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2002) 연구에서는 우울인지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불안인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이 높았다.

넷째, 복합 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에 부정적자동적사고가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고, 연구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하여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복합 외상경험은 부정적자동적사고에 유의한 정적의 영향을 보여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의 정도가 커질수록 부정적자동적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의 정도가 커질수록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적응적이며, 부정적이며, 왜곡되게 사건을 해석하는 인지요인이 중요하다고 제기한 선행연구(Rapee & Heimberg, 1997)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부정적자동적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왜곡된 인지, 부정적 자기진술 등의 역기능적 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Glass &

Fur long, 1990)와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Sobel 검정과 부트스트래핑으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복합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부정적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가 나타나 복합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외상 경험과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인 사고가 부분매개를 하였던 선행연구(송은영, 2005)결과와는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는 Sobel 검정을 통해 확인된 매개효과가 부분매개효과인지 완전매개효과인지 검증하기 위해 경쟁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내포된 관계에 있어 χ^2 의 차이는 연구모형의 경우 경쟁모형보다 더욱 간명함을 보여주었다. 복합 외상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동적 사고의 매개를 토대로 대인관계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위해 조절효과분석으로 검증해 본 결과, 복합 외상 경험이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 복합 외상 경험의 정도가 커질수록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증가하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있어 그 영향력이 증가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합 외상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자동적 사고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복합 외상 경험, 부정적자동적사고, 대인관계문제 간의 매개모형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연구모형에서 부정적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를 고려함에 있어서 성별을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복합외상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학교폭력 등 외상이 발생하는 장면이나 피해자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명시하여 각각의 외상 경험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인간 외상 경험을 낱알의 사건이나 피해로 정의하지 않고 복합외상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접근하였다.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양육자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나 방임은 복합외상 경험에 속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주 생활 공간인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또한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주요한 대인간 외상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의 대인간 외상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을 중심으로 대인간 외상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교라는 공간은 가정 이외의 또 다른 생활 공간이기에 학교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대인간 외상경험인 학교폭력을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에 포함시켜 매개변인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일반 다른 관계에서도 재희생자의 역할을 하거나 폭력적인 대인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Briere & Runtz, 1990), 이후의 발달과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들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인관계 문제 간에 매개변인을 연구함으로써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유경(2006)은 안정애착이 부분매개변인으로써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차미영(2010)은 초기부적응 도식이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인관계 문제 간에 부분매개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안정애착과 초기 부적응 도식은 만성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변인으로써 주 양육자로부터 만성적으로 형성되는 내면화된 수치심과도(이인숙, 최해림, 2005)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정적자동적 사고를 적절히 다뤄준다면 청소년 복합외상경험을 겪음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평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사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적 사고, 회피에 대한 사고 등에 벗어나 적응적인 삶을 지내고 적절한 대인관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복합외상경험 이후 개인의 특성 및 환경에 대처하는 개인의 삶의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대처방식에 대한 교육과 개입하기에 전에 부정적자동적사고를 다뤄준다면 보다 현실적으로 대인관계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부정적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점이다. PTSD 치료로 불안과 회피를 줄이기보다는 증가되는 생각이나 믿음을 구분하면서 신뢰와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기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사고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행해지는 인지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고, 그 태도에 따라 결과도 다른 것처럼 청소년들 역시 발달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복합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보여지는 외향적 특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개인의 부정적자동적 사고 정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탐색한 뒤, 심리적증상이 복합외상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자동적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상담 또는 치료를 개입해야 한다.

셋째, 성별에 따른 부정적자동적사고, 대인관계문제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복합외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성차를 살핀 연구는 드물기도 하고 부정적자동적사고에 대한 성차 연구는 성차결과가 매개모형에서 경로계수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각 변

수들과 하위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평균 차는 존재하였다. 부정적자동적사고의 하위요인들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여학생을 상담하거나 치료할 경우 내담자 정보에서 복합외상이 발견되는 경우 부정적자동적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내담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문지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실제 외상경험보다 낮게 보고했거나 과잉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의 경험 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했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검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거나 면접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고 반응의 왜곡을 줄여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표본 수가 충분하였고,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의 특성에 있어서 지역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광주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국내 전체 남녀 청소년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집을 통해 연구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복합외상경험을 학교폭력, 성적학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외상유형에 따라 처음 경험한 연령이나 기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살펴보지 못했고, 따라서 이들 변인들이 미치는 효과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즉, 외상경험의 발생시점의 연령, 외상의 지속기간 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구분하여 측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모형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복합외상경험으로 인한 현재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부정적자동적사고를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증상이나 후유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부정적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민지 (2005).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 또래관계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은희, 이은희, 임은정 (2002). 집단따돌림 행동유형과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45-460.
- 고나라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윤호균 (1994). 한국판 자동적 사고척도의 개발과 활용. **학생연구**, 29(1), 10-25.
- 권석만 (1996). 우울과 불안의 관계: 유발 생활사건과 인지내용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심리과학**, 5(1), 13-38.
- 권석만 (2008).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학지사.
- 권정혜 (1993). 인지행동치료의 실제. 1993년도 한국심리학회 동계연수회자료집.
- 김선하, 김춘경 (2006).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자아관련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7(6), 249-261.
- 김아다미 (2001). 아동의 학대 경험과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신, 고윤주, 노주선, 박민숙, 손석한, 서동향, 김세주, 최낙경, 홍상의 (2001). 초등학생에서 집단따돌림의 유병률과 이와 관련된 정신병리현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0(5), 876-883.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91-411.
- 김정규 (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47-770.
- 김정규, 김중술 (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47-770.
- 김정문 (2010).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동적사고, 정서인식, 정서표현 양가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욱, 권석만, 정남운 (2000).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의 개발: 요인구조 및 심리측정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53-175.
- 김정휘 (2012). 진단명: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원인, 증상, 진단, 치료와 예방. 시그마프레스.
- 김지은 (2013). 청소년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2012). 아동·청소년기 복합 외상경험과 정서지능이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수 (2009). 청소년의 위기 중복 유형 탐색: 서울, 인천지역 청소년지원센터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21-536.
-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 (K-CAT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55-963.
- 박나영 (2010).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복합 외상 증상 및 성격 특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철, 김석현 (2009). 복합외상과 극단적 스트레스 장애. **대한불안학회지**, 5(2), 80-88.
- 박순진 (2004). 초등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와의 상관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 (2007).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한아 (2006).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1). **의료기관을 방문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리조사**. 보건복지부.
- 배병렬 (2011). Amos19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서수균, 권석만 (2005).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 및 분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4(2), 327-339.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청소년들의 외상사건 경험. **한국교육심리학회**, 26(3), 787-816.
- 송은영 (2008).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동호, 육기환, 이호분, 노경선 (1997).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의학적 후유증에 관한 사례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8(1), 232-241.
- 심현진 (2012). 아동기의 외상경험과 대학생의 사회불안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동현 (2000). 아동학대 피해자 상담. **한국아동복지학회 제 4회 워크숍 자료집**, 3-16.
- 안무옥 (2007). 청소년의 외상경험, 정서조절,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 상담 연구**, 13(1), 31-41.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 안현의 (2007). 복합 외상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체계손상으로 본 복합외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283-301.
- 양재원, 홍성도, 정유숙, 김지혜 (2005). 부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ATQ-N)와 긍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ATQ-P)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631-646.
- 오경자, 양윤란 (2003a).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역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 오경자, 양윤란 (2003b).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I: 6개월 추적 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77-597.
- 오혜정 (2004).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부폭력노출경험이 성장 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민정 (2006). 요보호시설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와 자동적 사고에 따른 정서조절양식과 문제해결능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 조흥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 (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 현상**. 서울특별시 청

- 소년 종합상담실(편),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접근.
- 이영화 (2011).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 애착과 자동적 사고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운 (1998). 사회불안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와 노출 치료의 효과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춘재, 곽금주 (2000). 學校에서의 集團따돌림: 實態와 特性. 서울 : 集文堂.
- 이태영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지훈 (2009).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16.0. 법문사.
- 이흥림 (2004).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과 우울, 품행장애 성향,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 이희연, 하은혜 (2008). 청소년기 우울증상의 성차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3(4)**, 547-561.
- 장진이 (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이화여자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남운 (2001).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 **심리과학, 10(1)**, 117-132.
- 정의석 (2000). 마음의 상처 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선, 안현의 (2008). 청소년 학교폭력의 복합외상의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45-160.
- 조용래 (1998). 역기능적 신념과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가 사회공포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용래 (1999).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공포증상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 모델 접근법을 사용하여.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8**, 17-36.
- 조은정 (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미영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 도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6). 2006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청소년 폭력예방재단.
- 최윤자, 김아영 (2003). 집단따돌림 행동과 자아개념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 **교육심리학회**, 17(1), 149-166.
- 최은영 (2010).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은혜, 송동호 (2005). 청소년기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4(1), 89-97.
- 하정희 (1993). 학대적 가정 환경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력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 위기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한경은 (2005). 아동의 학대경험과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경 (2013).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체계손상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12).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양한 모형. 에스엔엠 리서치 그룹
- Julian D. Ford. (2012). 진단명: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원인, 증상, 진단, 치료와 예방(김정휘, 허주연, 김태욱 역). 시그마프레스.
- Alfano, C. A., Beidel D. C., & Turner, S. M. (2002). Considering cognition in childhood anxiety: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578, 1-25.
- Alfano, C. A., Beidel, D. C., & Turner, S. M. (2006). Cognitive correlates of socialphobia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182-194.
- Allen, J.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Washington,DC:AmericanPsychiatricPublishing,Inc. Roth, S., Newman, E.,

- Pelcovitz, D., van der Kolk, B., & Mandel, F. S. (1997).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 539–55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T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 Ambrose, B., & Rholes, W. S.(1993). Automatic cognitions and the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n examination of th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7, 153-171.
- Barnett, P. A., & Gotlib, I. H. (1988).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depression: Distinguishing among antecedents, concomitants, and conseq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04, 97–126.
- Beck, A. T.(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 Basic Books.
- Beck, A. T. (1991). Cognitive therapy : a 30-year retro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April, 368–375.
- Blatt, S. J., & Zuraff, D. C.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hree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527–562.
- Blaustein M. E., Spinazzola J., Simpson W., van der Kolk B. A. (2000). Psychological sequelae of early trauma: Comorbid diagnoses or diagnostic entity? 16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San Antonio, TX.
- Bolton, D., & Hill, J. (1996). *Mind, meaning, and mental dis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iere J. (1984). *The effects of childhood sexual abuse on later psychological functioning: Defining a post-sexual abuse syndrome*.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Briere,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12, 331–341.
- Briere, J., & Runtz, M. (1990). Differential adult symptomatology associated with three types of child abuse histories. *Child Abuse & Neglect*, 14, 357–364.
- Burgess, A.W., & Holmstrom, L. I. (1974). Rape trauma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1, 981–986.
- Burton, D., Foy, D. W., Bwananysi, C., Johnson, J., & Moore, L.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tic exposure, family dysfunc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male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7, 83–93.
- Chemtob, C. M., Roitblat, H. L., Hamada, R. S., Carlson, J., & Twentyman, C. (1988). A cognitive action theor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 2, 253–275.
- Cicchetti, D., Toth, S. (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i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4(5), 541–565.
- Courtois, C. A. (2004). *Complex trauma, complex reactions: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1, 412–425.
- Davidson, J. R. T., & Foa, E. B. (1991). Diagnostic issues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onsiderations for the DSM-IV.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46–355.
- Davis, R. A. (2001).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7(2), 187–195.
- Davis, J. L., Petretic-Jackson, P. A., & Ting, L. (2001). Intimacy dysfunction

- and trauma symptomatology: long-term correlates of different types of child abus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 63–80.
- Dodge, C. S., Hope, D. A., Heimberg, R. G., & Becker, R. E. (1988). Evaluation of the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with a socialphobic popul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211–222.
- Ellis, A. (1989). *Comments on my critics. in inside rational- emotive therapy : A critical appraisal of the theory and therapy of Albert Ellis*. Academic Press, New York, 199–235.
- Ehlers, A.,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disorde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8, 319–345.
- Everstine, D. S., & Everstine, L. (1993). *The Trauma Response*. New York: Norton Professional Books.
- Finkelhor, D., & Dzuiba-Leatherman, J. (1994). Children as victims of violence: A national survey. *Pediatrics*, 94, 413–420.
- Fletcher, K. E. (1996). *Childhoo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E, Mash & R. Barkley(Eds.)*, Child psychopathology. New York : Guilford.
- Foa, E. B., & Rothbaum, B. O. (1998). *Treating the trauma of rape: Conitive-behavioral therapy for PTSD*. New York: Guilford Press. Association.
- Foa, E. B., Riggs D. S. (199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rape*.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273–303.
- Ford, J. D. (1999). Disorders of extreme stress following warzone military trauma: associated featur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or comorbid but distinct syndrom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1), 3–12.
- Glass, C. R., & Furlong, M. (1990).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affec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365–384.
- Greenwald, R. (1998).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EMDR): New hope for children suffering from trauma and loss.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 279–287.

- Giaconia, R. M., Reinherz, H. Z., Silverman, A. B., Pakiz, B., Frost, A. K., & Cohen, E. (1995). Trauma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community population of older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1369-1380.
- Hackerman, A., Clark, D. M., McManus, F. (2000). Recurrent images and early memories in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8, 601-610.
- Haskett, M. E. (1990).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of you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1(2), 109-118.
- Heatherington, E. M., Stanley-Hagan, M., & Anderson, E. R. (1998). Martial transitions: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 Hegadoren, K. M., Lasiuk, G. C., & Coupland, N. J. (2006).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art III: health effects of interpersonal violence among women. *Perspective in psychiatric care*, 42(3), 163-173.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377-391.
- Herman, J. L. (1992).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 Horowitz, L. M., & de Sales French, R. (1979). Interpersonal problems of people who describe themselves as lonel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762-764.
- Horowitz, L. M.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Scoring procedures*. Unpublished manuscript,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Kessler, R. C., Sonnega, A., Bromet, E., Hughes, M., & Nelson, C. (199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2, 1048-1060.
- Kilpatrick, D. G., & Resnick, H. S. (1992). A description of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ield trial. In J.R.T. Davidson & E. B. Foa(E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SM-IV and beyond* (pp.243-250).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 Lewis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onigan, C. J., Vasey, M. W., Phillips, B. M., & Hazen, R. A. (2004). Temperament, Anxiety, and the Processing of Threat-Relevant Stimuli.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1), 8-20.
- Luterek, J. A., Harb, G. C., Heimberg, R. G., & Marx, B. P. (2004). Interpersonal rejection sensitivity in childhood sexual abuse survivors: mediator of depressive symptoms and anger supp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90-107.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A.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DESN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s in psychiatry, 21*, 373-392.
- Morris, T. L., & Masia, C. L. (1998).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Concurrent validity and normative data.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452-458.
- Newcorn, J. H., & Strain, J. (1991). Adjustment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318-327.
- Pelcovitz, D., van der Kolk, B. A., Roth, S., Mandel, F., Kaplan, S., & Resick, P. (1997). Development of a criteria set and a structured interview for the disorders of extreme stress (SID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 3-16.
- Roth, S., Newman, E., Pelcovitz, D., van derKolk, B., & Mandel, F. S. (1997). Complex PTSD in victims exposed to sexual and physical abuse: results from the DSM-IV field trial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4), 539-555.
- Schniering, C. A., & Rapee, R. M.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The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 Spence, S. H., Donovan, C., & Brechman-Toussaint, M. (1999). Social skills, social outcomes, and cognitive features of childhood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 211-221.

- Spence, S. H., & Reinecke, M. A. (2003). *Cognitive approaches to understanding, preventing, and treating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pa, L., & Clark, D. M. (1993). Cognitive processes in social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 255-267.
- Straus, M. A., & R. Gelles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N. J.; Saction.
- Staus, M. A., (1991). Verbal aggressing by parents and psychological problem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5, 223-238.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Horton.
- Taylor, S., Asmundson, G. J. G., & Carleton, R. N. (2006). Simple versus complex PTSD: A cluster 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 459-472.
- Terr, L. (1991).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0-20.
- van der Kolk, B., Pelcovitz, D., Roth, S., Mandel, F., McFarlane, A., & Herman, J. L. (1996). Dissociation, affect dysregulation, and somatization: The complexity of adaptation to traum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 83-93.
- van der Kolk, B. A. (2001). The psychobiology and psychopharmacology of PTSD, *Hum Psychopharmacol*, 16(1), 49-64.
- van der Kolk, B. (2005). Developmental trauma disorder. *Psychiatric Annals*, 35, 401-408.
- van der Kolk, B., & Courtois, C. A. (2005). Editorial comments: complex developmental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 385-388.
- Walker, L. E. (1984). *The battered woman syndrome*. New York: Springer.
- Wilson, J. J., & Rapee, R. M., (2005). The interpretation of negative social events in social phobia: change during treatment and relationship to outcom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 373-389.

- Wilson, J. P., & Silvana Turkovic, B. D. (2006). Posttraumatic Shame and Guilt. *Trauma, Violence, & Abuse*, 7(2), 122-141.
- Zucker, M., Spinazzola, J., Blaustein, M., & van der Kolk, B. A. (2006). Dissociative symptomatology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Journal of Trauma and Dissociation*, 7, 19-32.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위한 것으로,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설문지 하나하나가 연구의 귀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연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면 애써 답한 설문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내용상 여러분이 설문지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 도 교 수 : 정 승 아

연 구 자 : 모 상 미

연 락 처: 5726264@hanmail.net

조 선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상 담 심 리 학 과

1. 인적사항

다음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에 꼭 필요한 자료이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해당 사항에 V표시하시거나 기입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만 ()세

3. 귀하의 학년은?

중 학 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II. 심리척도

4. 다음은 당신의 18세 이전의 경험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잘 읽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면 0점에 자주 있었다고 생각하면 3점에 √표시 하세요.

번호	문 항 내 용	전혀 없었다	한두 번 혹은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1.	나는 주로 안전한 분위기에서 자랐고 가족의 관심을 받고 자란다.	①	①	②	③
2	나를 아침에 깨워서 학교에 가는 것을 봐주는 사람이 있었다.	①	①	②	③
3	나는 운동, 취미, 학교생활, 직장이나 다른 활동 같은 것에서 능숙했다.	①	①	②	③
4	나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①	①	②	③
5	나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친한 형제나 자매가 있었다.	①	①	②	③
6	나의 가족 중 누군가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나에게까지 관심이 가지 않았다.	①	①	②	③
7	내가 살든, 죽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①	①	②	③
8	집안의 힘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가족 외에 있었다.	①	①	②	③
9	가족들 간에는 내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밀이 있었다.	①	①	②	③
10	부모님은 내가 듣기 거북한 비밀을 이야기하곤 했다.	①	①	②	③
11	부모님은 이혼했거나 따로 살았다.	①	①	②	③

번호	문항내용	전혀 없었다	한두 번 혹은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12	혈연이 아닌 사람과 살았다 (양부모 혹은 먼 친척 등).	①	②	③	④
13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심각한 병이 있었거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15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매우 아팠거나, 사고가 났거나, 입원을 해야만 했다.	①	②	③	④
16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사고, 싸움, 범죄 등에서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거나 폭력으로 죽은 것을 보았거나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7	부모님 눈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성에 차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8	가족 중 누군가 모욕적인 호칭으로 나를 불렀다.	①	②	③	④
19	우리 가족 내부의 규칙은 분명하지 않았고 비밀관적이었다.	①	②	③	④
20	내가 받은 벌은 정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21	부모님이 싸울 때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며 다뤘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거의 집 밖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23	가족 중 누군가가 술, 담배, 도박 등과 같은 것에 빠져 통제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24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는 모르게 쉬쉬했다.(가정불화, 경제적 문제, 친척과의 관계 등)	①	②	③	④

번호	문항내용	전혀 없었다	한두 번 혹은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25	나는 집안에서 누군가가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친척, 이웃, 그 외 사람 등)	①	①	②	③
26	가족의 누군가가 폭행을 당해 병원에 간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27	가족 중 누군가가 술이나 약물남용의 문제가 있었다.	①	①	②	③
28	나는 술이나 약에 중독된 경험이 있다.	①	①	②	③
29	나를 돌봐주던 사람들이 술이나 약에 중독되어 나를 돌봐줄 수 없었다.	①	①	②	③
30	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서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맞은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31	나는 폭력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32	나의 가족외의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33	나는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34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교통사고, 폭발, 범죄, 사기 등)	①	①	②	③
35	자연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홍수, 태풍, 화재, 지진 등)	①	①	②	③
36	성적인 어떤 것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①	①	②	③
37	누군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나를 건드리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도록 했다.	①	①	②	③
38	누군가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강요했다.	①	①	②	③

번호	문항내용	전혀 없었다	한두 번 혹은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39	누군가가 내게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신체적으로 위협한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40	나의 형제나 자매 중 누군가가 성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①	②	③	④
41	나는 그 밖의 극도의 두려움과 무기력, 공포를 느끼는 위협적이고 잊지 못할 경험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2	나에게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다.	①	②	③	④
43	이 질문에 답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림, 기분이 우울해짐, 화가 치밀어 오름, 얼굴이 화끈거림, 신경이 예민해짐 등)	①	②	③	④

5.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떠올리면서 학교 안팎에서 친구, 선배, 후배, 모르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가장 심했을 때를 떠올리며 V 표시해주시시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친구, 선/후배들에게 신체, 폭행, 금품갈취, 비싼 물건 뺏음, 위협이나 협박, 괴롭힘,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없다	1-2 번	가끔	일주 일1 번	일주 일여 러번
1	신체 폭행(머리, 배, 팔, 다리 등 신체를 맞았다)	①	①	②	③	④
2	금품갈취(돈이나 아끼는 물건을 빼앗겼다)	①	①	②	③	④
3	위협, 협박(때리겠다는 위협,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협박을 받았다)	①	①	②	③	④
4	언어폭력(심한 욕설이나 모욕의 말을 들었다)	①	①	②	③	④
5	괴롭힘(툭툭 건드리고 심부름을 시키며 싫은 행동을 계속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①	①	②	③	④
6	따돌림(여러명이 집단을 이루어서 소외시키고 무시당했다)	①	①	②	③	④
7	사이버 폭력(문자로 욕이나 협박, 카페에 안좋은 소문 퍼뜨림, 사이버 머니 요구 등의 피해를 당했다)	①	①	②	③	④

(*위 문항에 한 문항이라도 1점 이상에 체크한 학생들은 8,9번 문항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단, 1~7번 문항 모두를 0점으로 체크한 학생들은 8,9번 문항에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처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때는 언제인가요? (□안에 V표시 하세요)

-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 중 학 교 1학년 2학년 3학년
-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9. 가장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때는 언제인가요? (□안에 V표시 하세요)

-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 중 학 교 1학년 2학년 3학년
-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6. 다음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고,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하지 않았 다	가끔 했다	때 때 로 했다	자 주 했 다	항 상 했 다
1	아이들이 나를 멍청하게 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양갚음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양갚음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고를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들은 나를 비웃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부모님이 다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바보처럼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누구든지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내용	전혀 하지 않았 다	가끔 했다	때때 로 했다	자 주 했 다	항 상 했 다
18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나쁜 생각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19	누가 나에게 상처 입히면, 나도 그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다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22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만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4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바보천치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만큼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29	다른 아이들이 나를 놀릴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0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31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내용	전혀 하지 않았 다	가끔 했다	때 때 로 했다	자 주 했 다	항 상 했 다
33	나는 누군가가 죽을까봐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에겐 뭔가 매우 잘못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쁜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내 자신이 밋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9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쁜 사람들은 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을 잘 읽고 자신과 비교하여 전혀 아니면 0점에 가장 잘 맞으면 4점에 V표 하세요.

<Part 1.>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 라고 느낀 정도를 V표시하세요.

번호	문항 내용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당한 요구라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4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Part 2.> 다음은 여러분이 느끼기에 ‘나는 대체로 이러한 면이 있다’ 고 생각하는 정도에 √표 하세요.

번호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9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 주장만 내세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받아주기 싫다.	①	②	③	④	⑤
23	너무 잘 속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내용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6	나는 존경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9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①	②	③	④	⑤
30	의견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①	②	③	④	⑤
31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 도와주려고 나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35	늘 주목받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뚜렷한 주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끌려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8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